

# 舊蘇聯의 언어학과 初期 북한의 언어연구

(Linguistics in the Soviet Union and its Influence  
on Early Linguistic Studies in North Korea)

정 광\*

## 요약

이 연구는 초기 북한의 언어연구에 영향을 준 구소련의 언어학을 조감하고 그것이 어떻게 북한언어학에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6·25동란과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은 완전히 유리되어 전혀 왕래가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엄중한 냉전 체제 아래에서 북한은 일부 공산권 국가를 제외하고 어떤 나라와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히 폐쇄된 채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학문도 마찬가지로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 중국의 학문만이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 언어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초기 북한의 언어학은 주로 구소련의 언어학을 그대로 수입하여 국어 연구에 이용하려 하였으며 북한 학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마르크주의 언어학을 비롯한 구소련의 마르크시즘의 언어학이 북한에서 주류를 이루었다.

구소련의 언어연구는 帝政 러시아의 末期에 시작된 보트엥 드 쿠르뜨네의 까잔학파에서 현대적인 연구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보트엥은 드 소쉬르에 못지 않은 현대언어학의 선구자로서 언어의 공시적 연구와 구조주의적인 언어 연구 방법을 신봉하였다. 그와 거의 동시대에 모스크바에서는 포르투나토프 학파의 언어연구가 있었으나 그들은 주로 드 소쉬르의 이론을 비롯하여 당시 서방세계에서 발달시킨 언어연구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와

---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거의 동시대에 모스크바에서는 포르쭈나토프 학파의 언어연구가 있었으나 그들은 주로 드 소쉬르의 이론을 비롯하여 당시 서방세계에서 발달시킨 언어연구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帝政러시아시대의 썩크트 뻬체르부르크에서는 드 소쉬르의 언어학보다 보드앵의 언어학에 더 친숙하였고 이곳을 중심으로 구소련의 마르크시즘의 언어학이 태동하게 되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구소련에서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새로운 언어연구는 엔.야. 마르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스스로 마르크시즘의 투사로 자처하였으며 초기 스탈린 시대에 그는 구소련의 언어학을 주도하는 인물이었으나 그의 이론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동향인 스탈린과 더불어 자신에 의하여 비판을 받으면서 마르크시즘의 언어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때에 주목을 받게 된 언어학자가 바흐친이며 그의 연구는 비단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학에까지 확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소련의 언어연구, 특히 마르크주의 언어학과 바흐친 등의 마르크시즘의 언어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북한 언어연구를 변모시켰는가를 고찰하였다. 특히 초기 북한에서 간행된 언어학 잡지인 <조선어 연구>를 중심으로 구소련의 언어학이 어떻게 북한에서 수입되어 연구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 제1장 서론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북이 분단되어 남한과는 교류가 끊어지고 정치·경제·문화·학문의 모든 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6·25 동란 이후에 남·북한은 일체의 교섭이 중지되었고 남한과 달리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은 매우 제한되었으며 學問도 舊蘇聯과 中國을 통하여 조금씩 외부와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남한에서와 같이 다양한 서양 언어학의 수용은 있을 수가 없었다.

북한 政權이 수립된 초기에는 중국에서 돌아온 金料奉에 의하여 周時經 국어연구가 계승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두봉은 주시경

의 首弟子로서 그의 이론을 가장 철저하게 받아들인 국어학자였으며 上海에 亡命하여서도 <김터조선말본> 등을 편찬하는 등 독립운동 시절에도 정력적으로 국어를 연구하였다. 또한 그는 북한 정권 수립에 깊이 관여하였고 부수상을 지낸 바 있으며 연안과 보스로서 북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주시경 학문이 북한에 전승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북한에서는 이데올로기 혁명으로서의 언어학을 주창한 ‘마르크시즘 언어학’과 스스로 마르크스-엥겔스의 혁명투사를 자처한 ‘엔.야. 마르(Н.Я. Марр)’의 언어학이 공산주의 이론과 함께 유행되었다. 김두봉 자신도 마르크주의 언어학에 심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추종자였던 김수경 등의 당시 젊은 언어학자들도 이 이론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김수경은 남한에서 월북한 언어학자였으나 러시아어에 능통하여 엔.야. 마르의 언어학을 비롯한 마르크주의 언어이론을 소개하였다. 즉 김두봉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어문연구회에서 1949년 3월 31일에 창간한 <조선어 연구>는 초기에 북한에서 간행한 유일한 언어학 및 국어 연구 학술지였는데 6·25 동안 직전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거의 월간으로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주로 김수경이 번역하여 소개한 마르크주의 언어 이론이 여러 편 실렸다.<sup>1)</sup>

1) 우선 <조선어 연구> 創刊號이자 3월호(1949. 4월 간행)에는 에스. 데 까즈넬손의 “쑤베트 一般言語學의 三十年”(pp.99~125)이 번역되었고(김수경 번역) 또 김수경이 번역한 “쑤베트 言語學의 當面課題”(pp.126~132)가 실렸다. 후자는 1948년 6월 12일에 게.뻬. 세르쥬첸코가 엔.야. 마르 언어와 사유 연구소에서 “사상·정치적 문제에 관한 전동맹공산당(불셰위끼)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철학 토론의 총화에 비추어 본 쑤베트언어학의 당면과업”이란 제목으로 행한 보고(<쏘련 과학아카데미야 문학·언어분과 기관지> 1948년 제5호 게제)를 번역한 것이다. 전자는 <쏘련 과학아카데미야 문학·언어분과 기관지> 1947년 제5호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두 논문 모두가 마르크주의 언어학을 소개하거나 이 언어이론의 당면 과제를 밝힌 것으로 당시 북한이 얼마나 마르크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를 말해 준다.

같은 시기에 조선어문연구회에서 편찬한 <조선어 문법>(1949, 평양)은 ‘이극로, 전몽수, 허익, 명월봉, 김용성, 신구현, 홍기문, 김병제, 박종식, 박준영, 박상준, 김수경’ 등 12명의 ‘문법편수 분과위원회’(위원장 전몽수)에서 편찬한 것이나 실제로는 김수경이 주도한 것이며 당시 북한에서 김일성과 비견할 만한 정치적 위치에 있었던 국어학자 김두봉의 언어이론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이 문법서임에도 불구하고 김두봉이 창안한 ‘조선어 신철자법’을 소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sup>2)</sup> 김두봉과 김수경이 모두 마르주의 언어학에 심취되어 있었으므로 <조선어 문법>이 그 이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품사분류에 대한 이론과 명사와 동사의 어형변화에 대한 형태음소론적 이해는 마르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sup>3)</sup>

- 
- 2) 이에 대하여 필자미상의 “우리 당의 과학정책에 충실한 조선 어학을 위하여”(〈조선어문〉 1958년 제3호)에서는 “김두봉은 1948년 1월에 자기 개인의 황당무계한 ‘리론’이 반영된 ‘조선어신철자법’을 ‘조선어문연구회’의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출판하였고 1949년 ‘조선어문연구회’에서 집체적으로 편찬하기로 되어있던 ‘조선어 문법’을 강압적 방법으로써 자기에게 충실한 김수경 동무로 하여금 집필케 하고 이 문법서를 약명높은 ‘신철자법’으로 출판케 하였다”라고 하여 이 문법서가 김수경이 주도한 것이며 김두봉의 ‘신철자법’이 반영된 것임을 증언하고 있다.
- 3) 마르주의 언어학에서 형태음소론(morphophonemics)에 대한 이론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우선 김수경이 번역한 까즈넬손의 “쑤베트 一般言語學 三十年”(〈조선어 연구〉 창간호)에 “엔.에프. 야꼬블레프는 훨씬 후기의 저술에서, 그리고 그를 따라 몇몇 다른 모스크바 음운론자들도 先覺 브두앵(보드앵)에 의지하여 음운을 본질적으로 어음론적 범주가 아니라 형태론적 범주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에르.이. 아와네소브와 웨.이. 씨도로브는 음운의 이론을 음운교체에 관한 쉬체르바의 이론과 합일시켜, 음운의 ‘變異’와 음운의 ‘變種’을 구별하는 바 전자는 위치적 뉴앙스를 의미하고 후자는 동일 형태부의 각종 형태에서 교체하는 독립적 음운이라고 이해한다”라는 주장의 ‘音韻變種’은 활용과 곡용에 나타나는 음운의 교체형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언어학

전후 북한사회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북한정권이 내치에 관심을 갖게된 1960년대에 김일성은 북한의 언어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이념 투쟁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1950년대 스탈린이 보여준 언어학적 지식과 언어정책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우리말과 그에 대한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과 1966년 의 두 차례에 걸친 북한 언어학자에게 내린 소위 김일성 교시에 의하여 북한 언어학은 크게 변모하게 된다. 더우기 1968년 김두봉이 완전히 숙청되자 그 반대세력이 북한의 언어학을 주도하면서 마르주의 언어학 이론은 북한의 언어연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 때부터 북한에서는 스탈린에 의하여 강조된 ‘신언어학이론’이 관심을 끌게된다. 이 이론은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언어학이라고 자처했던 마르주의 언어학에 반대하여 생겨난 것으로 帝政러시아 시대부터 발달하여 舊蘇聯에 연결된 러시아의 언어학과 시월 혁명 이후 구소련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고찰된 이데올로기적 기호의 연구, 즉 이데올로기적 언어학이 접목된 것이다. 스탈린에 의해서 주창되어 북한에서 각광을 받은 이 ‘신언어학’은 북한의 언어연구에 아주 중요한 이론이지만 지금까지 한국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사상연구에서도 언어에 대한 언급을 명쾌하게 보여준 것도 없었다. 다만 줄고(1994) 등에서 논의된 마르크스-엥겔스, 레닌 등 마르크스주의 창시자들의 언어에 대한 언급은 上部構造로서의 이데올로기라든지 상부구조와 土臺와의 관계와 같이 이데올로기가 社會라는 統一체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언급하면서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데올로기적 형성물의 소재(=언어)나 이데올로기적 의사소통의 제조건(=언어상황)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史的唯物論의 一般理論으로서는 2차적인 것으로 보고 결론을 낼 만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27년 В.Н. Волшинов <Марксизм и Философия языка—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го метода в науке о языке—>(마르크시즘과 언어철학—언어학에 있어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의 기본 문제—)가 레닌그라드(지금의 뻬테르부르크)에서 발표되고 나서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이란 용어가 극히 제한된 동구권 학자들 사이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책은 볼쉬노프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М.М. Бахтин(바흐친)의 저작으로서 그는 이미 데리다, 비트겐슈타인, 푸코, 라캉, 하이데거, 루카치, 니체, 야콥슨 등에 의하여 거론된 바 있는 구소련을 風靡한 철학자이며 문학자, 그리고 언어학자였다.

이 책의 제3부에서는 ‘간접화법과 직접화법 및 그 변형’이란 제목으로 언어 연구에서 표현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주로 문체론적인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해방후에 북한에서 왜 문체론적인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북한의 국어연구에서 서양언어이론의 도입은 제정러시아로부터 구소련에 걸쳐 발달한 러시아 전통적인 언어학과는 별도로 이데올로기 언어연구로 시작된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이 영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제정러시아와 구소련에 걸친 언어학의 흐름을 살펴보고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하여 주도된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그것이 북한의 언어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제2장 帝政러시아 末期로부터 舊蘇聯에 이르는 러시아 언어학

제정러시아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의 2월 및 10월 혁명에 의하여 멸망하고 1918년부터 러시아 공산당이 통치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혁명의 渦中에서 인문과학의 하나인 언어학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이렇게 변모된 러시아의 언어학은 소쉬르에 의하여 唱導된 서방세계의 언어학과 매우 다르게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구소련의 언어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한과는 매우 다른 국어연구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제 제정러시아의 말기로부터 공산혁명을 거쳐 구소련과 러시아를 거쳐 변모해가는 東歐圈의 언어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 2.1 보드앵 드 쿠르뜨네(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Бодуэн де Куртнэ)와 까잔학과

東歐圈의 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드앵 드 쿠르뜨네(Jan Ignacy Nieśław Baudouin de Courtenay, 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Бодуэн де Куртнэ)의 까잔학과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제정러시아로부터 구소련에 걸쳐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을 수립한 선각자는 프랑코 스위스학파의 페르디낭 드 소쉬르, 또는 프리그학파의 뉘르벳츠코이와 이름을 같이할 수 있는 보드앵을 들 수 있다.<sup>4)</sup> 19세기 말부터 20세

4) 보드앵 드 쿠르뜨네는 1845년 3월 13일 폴란드 바르샤와 근교의 작은 마을인 라지민에서 태어났다. 러시아 문헌에서는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보드우앵 데 쿠르뜨네(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Бодуэн де Куртнэ)라고 불리고 폴란드어로는 얀 이그나찌 니에치스와브 보드앵 드 쿠르뜨네(Jan Ignacy Nieśław

기 초에 활약한 러시아 포말리스트들이 매우 진보적인 언어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보드앵의 참신한 학설이 러시아 호말리즘 詩學의 成立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sup>5)</sup>

19세기말에는 러시아에서도 通時態와 共時態의 언어연구가 주목되었고 보드앵에 의하여 이미 1870~80년대에 共時態의 연구가 우선되어야 함이 주장되었다. 보드앵의 愛弟子였고 일본에 러시아 구조주의 언어학, 특히 구조방언학을 전수한 뿌리마노프는 공시적 언어연구의 창시자로서 인정되는 드 소쉬르 遺著인 <일반언어학강의>에 대하

---

Baudouin de Courtenay)라고 불린다. 아버지는 폴란드 帝國의 測量士였으며 어머니는 지주의 딸이었다. 안 이그나찌 니에치스와브는 카도릭 교도의 이름이고 보드앵이란 성은 프랑스의 것이다. 보드앵은 와르샤와대학 문학부에 들어가 언어학을 전공하였고 1866년에 동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 후 그는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러시아의 썅크뜨 뻬제르부르크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하여 '14세기 이전의 고대 폴란드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교수직을 얻기가 어려웠으며 '래지아방언의 음운연구 시고'란 제목으로 썅크뜨 뻬제르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시베리아의 볼가강 중류에 위치하여 구소련의 타타르자치 공화국의 수도였던 카잔의 카잔대학에 부임하여 비로소 정착하게 된다. 그는 여기서 카잔학파를 만들어 연구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음소(фонема)란 술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1881년에는 과리에서 개최된 언어학회에서 소쉬르와 만났다. 1883년 학교와의 마찰로 카잔을 떠나 도르파트로 갔다. 1897년에는 썅크뜨 뻬제르부르크 과학아카데미의 준회원이 되어 뻬제르부르크에 돌아왔으나 여전히 대학에서는 전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강사로 근무할 뿐이었다. 1913년에는 1907년에 썼던 소수민족을 옹호한 논문 때문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학교에서 해고되었다. 1918년에 폴란드에 귀국하여 와르샤와대학에서 활동하였고 1929년 11월 3일 고국에서 생애를 마쳤다.

- 5) K. Pomorska는 그의 Pomorska(1968)에서 '오포야즈(詩의言語研究會)'가 전개한 문학회론의 기본적인 원천으로서 첫째 人文學의 一般方法論, 둘째 훈씨얼의 現象學的 哲學, 셋째 근대언어학의 方法論, 넷째 近代藝術의 이론과 실천의 넷을 들고 있다.



여 Поливанов(1928/34)에서 다음과 같이 극언을 펴부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엇인가 일대 발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드 소쉬르의 遺著는 옛날 우리의 보드앵 및 보드앵학과가 이미 자기 掌中의 것처럼 알고 있었던 것이었음에 비하여 일반언어학적인 문제의 제기와 그 해결에 있어서 이 책에서는 문자 그대로 하나도 눈에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 桑野隆(1979/13)의 번역에서 인용.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러시아 포말리즘의 언어학 방법론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이었으며 ‘日常言語와 詩的 言語의 구별’에 대하여 보드앵이 갖고 있었던 ‘언어적 사고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의 구별’이라든지 ‘언어의 다기능성’ 등에 대한 집요한 주장은 러시아 포말리즘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K. 포몰스카(Pomorska, K. Поморска)나 바흐친은 러시아나 구소련의 언어학이 드 소쉬르의 언어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Pomorska(1968/19)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소쉬르 및 러시아에 있어서 그의 신봉자들은 공식적 연구를 우선하였지만 그것은 어떠한 역사적 해석도 포함하지 않고 체계(system)로서 언어를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기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특유의 방법을 별도로 사용함으로써 맞서야 한다고 본다. 소쉬르적인 방법론의 두번째 중요한 특징은 랑구와 빠롤의 구별, 즉 체계 전체와 개인 언어활동을 구별한 것이다. 桑野隆(1979/11)의 번역에서 인용.

이 언급에 의하면 러시아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공식적 연구라든지 체계적인 언어의 기술 같은 것을 소쉬르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도 이러한 생각이 널리 퍼져있었는데 예를 들면 바흐친은 그가 쓴 글 가운데 “우리 나라의 언어학적 사고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태반은 소쉬르 및 그 제자들-바이이와 세쉬에-의 결정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Волошинов:1928)”라고 하여

보드앵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쉬르의 이론이 러시아에 S.I. 칼체프스키(Karcevskij, С.И. Курцевский)에 의하여 러시아에 소개된 것은 1917년 3월의 일로서 그 이전에 V.B. 쉬크로프스키(Shkrovskij, В.Б. Шкловский)의 <말의 復活> (1914)이나 시그로프스키와 L.P. 야쿠빈스키(Jakubinskij, Л.П. Якубинский), 그리고 E.D. 폴리바노프(Polivanov, Е.Д. Поливанов) 등에 의하여 편찬된 <시적언어논집> 제1호(1916) 및 제2호(1917)가 소쉬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보드앵이 까잔대학으로 옮긴 다음 그곳에서 강의를 들은 제자들, 특히 폴란드 출신의 M. 크루제프스키(Kruszewski, Миколай Крушевский, 1851~1887)와 다른 제자들, 예를 들면 S.K. 부리치(Burič, С.К. Бурич) 등과 함께 발전시킨 언어학 사상을 까잔학파(Kazan school)라고 한다.<sup>6)</sup> 이들의 언어학 사상은 비록 그것이 1870년대의 것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진보적이어서 먼 뒷날인 금세기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학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전혀 새롭고 신선하며 독특한 체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얻었다(Ivič:1970/§ 186).

두 사람이 활약한 까잔은 러시아에서 변두리에 속하며 학문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쌍크트 삐제르부르크에서 수학하고 까잔대학으로 부임한 보드앵이 학위를 받으려고 이곳에 온 크루스제

6) 이들은 모두 보드앵 드 쿠르트네의 강의에 매료되어 모여든 학생들이었다. 쿠르트네의 강의에 대하여는 부리치가 “학문으로 쏟아붓는 격렬한 정열, 스스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 이러한 특징도 역시 또 천부적인 재능이 풍부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멀리 떨어진 까잔대학의, 청강생에게도 숫자로 들어가지 않는 미미한 문학부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보드앵 드 쿠르트네를 둘러싼 (중략) 젊은 학자들이 자립된 완전한 하나의 학파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Бурич:1897/48~49)라고 하여 얼마나 쿠르트네의 강의가 열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을 감동시켰는지를 말하고 있다.

우스키를 만난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대화에는 그 때까지 논의된 일이 없는 언어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들어 있었으며 일반언어학에 대한 정밀하고 새로운 이론을 세워나갔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의 학파로서 그 사상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보드앵은 폴란드의 민족주의자로 인식되어 러시아정부의 박해가 계속되었고 급기야 까잔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게 되어 까잔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그의 제자이며 그와 더불어 새로운 언어이론을 수립해 나가던 크루스제우스키도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실로 그의 스승인 보드앵의 회상이 없었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망각되었을 것이다.<sup>7)</sup>

현대언어학에서 기초적인 중요한 개념들이 까잔학파의 두 사람에 의하여 공식화되었다. 예를 들면 랑구(langue)와 빠롤(parole)의 구별이라든지 언어의 공시적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든지 하는 등의 새로운 개념이 이들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보드앵은 언어사실의 변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일정한 시대의 정태적인 언어의 연구도 중요함을 이해한 최초의 학자로 알려졌다(Ivič:1970/ §188). 오늘날 서방 세계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중요한 언어연구의 개념이 드 소쉬르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까잔학파의 최대의 공적은 드 소쉬르의 프랑코-쥬네브학파와 프라하학파의 혁명적인 언어이론의 발전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었다는 점이다. 보드앵과 드 소쉬르는 1881년 12월과 그 이듬해에 여러 차례 만났으며 편지도 주고 받았다(桑野隆:1979/23). 드 소쉬르에게는

7) 크루스제우스키에 관하여는 Jakobson: "The Kazan' School of Polish Linguistics," Jakobson (1971, 2/394~428)와 쿠르트네의 "미코라이 크루스제우스키, 그 생애와 업적(Baudouin de Cortenay: Mikolaj Kruszewski, jgo zucie i prace naukowe)," Prace filologiczne, II, Fasc., 3(1888), pp.837~849 및 Prace filologicane, III, Fasc.,1(1889), pp.116~175 등을 참조할 것.

靜態學과 動態學의 구별이라는 점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프라하학파에는 이미 언어 분석의 단위로써 그 개념이 파악되고 있는 음소에 대하여 **Фонема**(phonema)라는 러시아어를 대응시켰고 형태소란 술어도 고안하여 다대한 영향을 주었다(Jakobson: The Kazan' School of Polish Linguistics, Jakobson:1971 2, pp.394~428). 또 音聲學과 音韻論을 구별하였으며 유형론(typology)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형태론적인 악센트 사용의 유무와 모음에서 장단의 대립 유무에 의한 슬라브제어의 분류는 오늘날에도 그 탁월성을 인정하고 있다.

## 2.2 포르투나토프(Fortunatov) 학파와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Moscow Linguistic Circle)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스크바대학의 비교문법학 교수였던 F.F. 포르투나토프(Fortunatov, **Филив Федрович Фортунатов** 1848~1914)는 보드앵 드 쿠르뜨네와 같은 시대의 사언어학자로서 비록 까잔학파와 같은 수준의 언어관은 아니었으나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 포르투나토프의 언어연구는 매우 실천적이었으며 주로 현실의 언어자료를 연구했지만 학문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언어의 通時態와 共時態의 구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리학적 방법을 원용하지 않고 直觀에 의하여 올바른 언어 분석의 기준을 세웠다(Ivič:1970).

포르투나토프 자신은 많은 논저를 남기지 않았으나 A.M. 뻤스코프스키(Peškovskij, **А.М. Пешковский**), A.A. 샤흐마토프(Šaxmatov, **А.А. Шахматов**), A. 벨리치(Belič, **А. Белич**) 등의 저명한 슬라브 언어학자들을 규합하여 후일 모스크바학파로 불리는 언어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창출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언어학자인 벨리치는 포르투나토프의

학생이었으며 소장문법학과를 사숙하였다. 그는 세르보-크로아티아어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후일 이 언어들에 대한 연구는 그의 문하생에 의하여 독점되었다. 그는 소장문법학과와 영향을 받아 슬라브어의 역사적 연구에 관심을 가졌으나 후일 언어이론에 몰두하여 단어의 형태론적 구조의 차이라든지 그 연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단어의 통사론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통사론 층위에서 단어의 결합에 관한 이론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統合論(syntagmatics)’의 시초가 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제자들의 모임인 모스크바 언어학서클로 발전하여 구소련의 언어학을 대표하게 되고 야콥슨에 의하여 그 일부가 서방세계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Moskovskij lingvističeskij kružok)은 1915년 R.O. 야콥슨(Jakobson, P.O. Якобсон), P.G. 보가뜨레프(Bogatyrev, П. Г. Богатырев), A.A. 부스라예프(Buslaev, A.A. Буслаев), F.N. 아프레모프(Afremov, Ф.Н. Афремов), N.F. 야코블레프(Jakovlev, Н.Ф. Яковлев), S.I. 라고진(Ragozin, С.И. Рагозин), P.P. 스베쉬니코프(Svešnikov, П.П. Свешников) 등 언어학과 민속학에 관심을 가진 7명의 학생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다(Jakobson:1971/530). 야콥슨은 이 씨클의 50주년을 기념하는 글(“移住하는 術語와 制度 모델의 一例”, 1965)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서클은 1세기 전과 같이 ‘官憲의 敵意를 불러 일으키기 쉬웠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와 연결된 모스크바 방언위원회의 추진자이며 우리들이 좋아하는 D.N. 우사코프(Ušakov)선생에게 말씀을 드려 우리 그룹이 이 위원회의 후원 아래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 (중략) 우사코프선생의 친절한 신청의 덕분에 방언위원회 의장 F.E. 콜쉬(Korš, Ф.Е. Корш)에 의해서 1914년 말에 아카데미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러시아어·러시아문학 부문의 書記 A.A. 샤흐마토프(Šaxmatov, A.A. Шахматов)가 공식적으로 署名한 아카데미로부터의 회답은 우리들이 ‘방언위원회와 提携

함과 더불어 언어학, 시학, 운율론, 민속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젊은 언어학자들의 서클(circle of young linguists, Кружок из молодых лингвистов)을 創設할 것을 인정하였다. 우리들은 콜쉬의 내락을 언어 그를 명예회장으로 뽑을 예정이었으나 1915년 3월 2일 첫 모임의 그날에 우리 서클은 그의 逝去를 알게되어 언어와 韻文, 口傳傳統文學의 위대하고 과감한 연구자인 그에게 목도를 올리게 되었다. 18세에서 20세 전후였던 학생들은-7명의 창시자들과 후에 참가한 2인, L.I. 바질레비치(Bazilevič, Д.И. Базилевич) · G.G. 덩게스(Dinges, Г.Г. Дингес)-콜쉬의 연구로부터 얻은 교훈을 충실하게 지켰다. (중략) 후에 활동적인 멤버가 되어 書記가 된 G.I. 뷔노쿠르(Vinokur, Г.И. Винокур)는 1922년에 민속학과 민족학 문제와 똑같이 실용언어와 시적 언어 쌍방의 언어학적 문제를 해명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공동의 집단적 연구에 의함을 목표로 하였다”(桑野隆:1979/41에서 일부 재인용)라고 하여 이들의 연구가 민속학, 시학, 그리고 언어학의 연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918년 이래로 이 서클은 자신들의 集會室과 圖書室을 갖게 되었고 그곳을 방문한 젊은 언어학 · 詩學의 연구자들 모두에게 학문적 흥미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1919년~20년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였다(Jakobson: Selected Writings, 2, Mouton, 1971/530~531).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은 1924년 여름에 정식으로 해산하였다. 이 해는 러시아에서 포말리즘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한 때다. 아무튼 이 서클은 단순한 언어 연구만은 아니고 야콥슨 등에 의하여 주도된 언어학과 문학, 특히 시학의 만남이 되어 후일 그의 학문이 나아갈 바를 예견하게 된다. 그는 이들의 시적 언어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전통적인 언어학이 放置하여 온 이 영역을 통하여 新文法學派의 흔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더욱이 언어에 있어서 전체와 부분의 문제라든지 목적과 수단의 관계, 즉 그 구조적인 법칙이나 창조적

인 양상은 일상적인 말에 있어서보다도 시적언어에 있어서 觀察者에게 한층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이들이 主導한 언어학과 詩學의 만남이 의도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ツヴェタン・トドロフ編 <文學の理論>, 理想社, 1967/7).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시대의 소련 언어학에 서 소쉬르의 언어학을 수입하여 전통적인 러시아 언어학과 대항하려 했다는 점이다. 소쉬르의 <一般言語學講義>는 1916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1910년~20년대에 러시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바흐친은 ‘西歐에 있어서의 最新言語學思潮’(1928)에서 “러시아에서는 포슬러학과가 친해지지 않은 것만큼 소쉬르학파가 인기를 넓히고 있으며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어학적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태반은 소쉬르 및 그의 제자들—바이이와 세쉬에—의 결정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Винокур:1923/100~101)고 하여 그 시대에 얼마나 소쉬르의 영향이 컸었는가를 증언하고 있다.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의 일원이었던 A.I. 롬(Rom, A.I. Ром, 1898~1943)은 1922년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를 번역하여 바이이와 세쉬에게 출판하겠다고 편지를 보냈으나 그들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여 단념한 일도 있었다.<sup>8)</sup>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은 전술한 보드앵으로부터 직접 언어학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술할 뻘제르부르그학과보다 더 직선적으로 소쉬르의 이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소쉬르의 靜態的 연구, 즉

8) 러시아에서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가 번역된 것은 페첼쏰(Печелшон—그는 바흐친에 의하여 소쉬르 신봉자의 대표자로 불렸다)이 <出版과 革命> 1923년 제6호에 ‘일반언어학’이란 소논문을 실어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의 개요를 짧게 소개하였다. 이 때에 ‘langage’는 ‘речь’, ‘langue’는 ‘язык’, ‘parole’은 ‘слово’로 번역하였다. 이 책이 정식으로 러시아로 번역된 것은 1933년의 일로서 이 때에는 ‘langage’는 ‘рече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langue’는 ‘язык’, 그리고 ‘parole’은 ‘речь’로 번역되어 그대로 굳어지게 되었다.

공시적 언어연구방법은 이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주었다. 당시 모스크바대학에서 이 서클을 주도하던 야콥슨도 보드앵의 영향을 일찍이 경험한 바 있음을 회상하였다. 야콥슨은 뻬제르부르크대학시절의 회상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신입생인 필자가 자신이 만든 독서계획의 문헌리스트를 체크하여 주시 사하고 D.N. 우샤코프(Ušakov, Д.Н. Ушаков) 선생께 말씀드렸더니 선생께서는 L.V. 쉬체르바(Ščerba, Л.В. Щерба)著的 러시아 모음에 관한 1912년의 모노그래프(Щерба: 1912, 다음의 뻬제르부르크학파를 참조할 것)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를 찬성하였다. 쉬체르바의 그 책은 보드앵의 탐구로부터 성장한 것이며 모스크바 언어학파의 정통적인 이론과는 전혀 이질적인 연구 흐름을 따른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필자가 최초로 읽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금지된 글이었으며 필자는 그 도전적인 책의 서문에서 음소의 개념에 대한 주석을 읽고 곧 바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은 1917년에 S.J. 칼체프스키(Karčevskij, С.З. Карцевский)가 제네바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모스크바에 돌아와서 우리들은 소쉬르의 이론을 전해주었다(Jakobson: 1971, I./ 631).

이 언급에서는 우리는 소쉬르가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영향을 주기 이전에는 보드앵의 이론이 모스크바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뻬제르부르크학파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 2.3 뻬제르부르크 학파

20세기 초에 쌍크트 뻬제르부르크에서 활약하던 오포야즈(시적인 어연구회)를 뻬제르부르크학파라고 부른다.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이 주로 젊은 언어학자들로 구성되었다면 이 학파는 야쿠빈스키라든지 뿌리바노프 등의 중진 언어학자와 시크로프스키, 에이헨바움 등의 문학이론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언어학자들은 전술한 두 사람과



쉬체르바를 포함하여 3인의 뻬쩨르부르그학과 언어학자라고 불리며 모두 보드옹의 제자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중한 냉전시대에 서방세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보드옹은 독특한 언어연구로서 특히 러시아 언어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프라하학과를 창시한 빌렘 마테지우스는 이 점에 대하여 “보드옹의 여러 견해는 언어학적인 연구를 生理學的인 音相論의 중압감에서 해방시켰으며 보드옹의 덕분에 러시아 언어학자들은 소쉬르의 사상이 그의 강의록이 출판되어 한층 더 명성을 날리기 이전에 이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상당히 끝내고 있었다”(Матезиус:1965)라고 하여 보드옹의 생각이 소쉬르 이전에 러시아 언어학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은 소쉬르의 언어학에 필적할 새로운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드옹의 제자였던 3인의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주도된 뻬쩨르부르그학과의 언어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 첫째는 독일의 흙볼트가 최초로 주장한 바와 같이 언어라는 것은 에르곤(ergon)이 아니라 에네르기아(energeia)이며 언어는 언어 현상에서 추출되어 확립된 각종의 응고한 규칙이 집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프로세스, 끊임없는 운동으로 보았다(Якубинский : 1932/41). 이것은 보드옹의 영향이 잘 나타난 것으로 바흐친은 <마르크시즘과 언어철학>(1929)에서 “언어·말의 리알리티(reality)라는 것은 언어의 상호 작용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산물인 것이다. (중략) 언어는 분명히 구체적인 의사소통 속에서 생겨나며 역사적으로 생성되어 가는 것이다”(Волюшинов: 1929/69)라고 하여 언어의 역동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뻬쩨르부르그학과는 바흐친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 이들의 스승인 보드옹은 언어의 심리적인 면과 동시에 사회적인 면을 중요시하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언어활동을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물론 개중에는 언어의 심리적인 면에

비중을 두려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10년대에 시체르바는 오히려 스승인 보드앵보다 더 선명하게 심리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또 초기의 야쿠빈스키는 언어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대등하게 보았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윽고 마르크주의적 색채조차 언뜻 보이게 되었다. 다만 뿌리바노프만은 처음부터 언어의 사회성에 비중을 두었다.

빼제르부르그학과 언어연구의 두번째 특징은 언어의 변천에 대하여 언어내적 요인(변화의 제법칙)과 언어외적 요인(사회적·경제적)을 구별하였다는 점이며 이들과 더불어 각 요인의 상호관계가 주목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뿌리바노프는 이런 점에 대하여 마르크주의자들과 다투게 되어 드디어 비운의 죽음을 맞게 된다.<sup>9)</sup> 뿌리바노프가 가졌던 ‘言語進化’에 대한 생각은 드뷔냐노프의 <文學의 進化에 대하여> (1927)에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도 있다(桑野隆:1979/45).

세번째의 특징은 언어적 사고에 있어서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려는 태도다. 이것 역시 역시 보드앵의 생각으로 소급되며 이러한 태도는 러시아 포말리즘에서 시적언어와 일상언어가 구별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sup>10)</sup> 주로 야쿠빈스키에 의하여 주

9) 뿌리바노프는 러시아의 시월혁명 이후 유물론적 언어이론가로 자처하여 권력을 잡은 마르크주의의 언어진화론에 반대하였으며 결국은 그들의 공격을 받아 1929년에 모든 직위에서 해직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르크주의에 반대하자 마르크학파의 고발로 인하여 1937년 3월에 체포되었고 그 이듬해 1월 25일에 獄死하였다.

10) 좋은 예로서 이 학파의 야쿠빈스키가 실용언어와 시적언어를 구별하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그는 ‘詩語의 音에 대하여’(1916)란 소논문에서 “언어현상은 화자가 스스로 어떤 목적의 언어적 소재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만일 화자가 언어적 소재를 순수하게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들은 실용언어의 체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되고 그곳에서는 언어적 표상(音, 형태론적 부분, 기타)들이 자립해서 가치를 갖지 못하며 모두 하나의 의사 소통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용적인 목적이 뒤로 물러나 있고 언어적 결합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갖고 있는 다른

도된 이러한 철저한 구별은 그의 스승인 보드앵의 방법을 계승한 것으로 베르그송(Bergson, Henri Louis)의 唯心論에서 말하는 ‘오토마치즘(자동현상)’과 얽혀있다. 또 보드앵의 이와 같은 구별은 이미 그의 ‘아우구스트 슬라이허’(1869년 발표)와 ‘언어학과 언어에 대한 약간의 일반적 견해’(1871년 발표) 등의 초기 논문에서 역설되었다. 그는 슬라이허의 “언어는 인간의 의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이라는 견해에 의심을 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보드앵은 靑年文法學派와는 달리 국제인공어의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언어는 스스로 내부에 폐쇄된 유기체가 아니며 불가침의 偶像도 아니다. 그것은 道具이며 活動이다”(Бодуэн де Куртэнэ:1963/140)라고 하는 보드앵의 언어관이 있었는데 이 언어관은 언어 도구설을 신봉하는 것이었다. 보드앵은 자연발생적인 일정한 所産이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내세운 目的에 잘 맞지 않을 경우에 인간은 스스로 그 道具의 제작 목적에 맞도록 해야하는 권리가 있고 또 의무도 있다고 하면서 “언어는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인간과 함께 있는 이상 인간인 우리들은 언어를 다른 심리적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찾으려 하기 보다는 완전히 그것을 지배하고 자신의 의식적인 간섭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Бодуэн де Куртэнэ :1963/140~151)라고 생각하였으며 뻬체르부르그학파는 의식적인 사고에서 언어가 무의식적인 것과는 달리 하나의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것 같다. 이것이 후일 唯物論的 言語道具觀으로 발전하여 구소련의 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

---

언어체계도 있을 수 있다. 현대의 언어학은 전혀 실용언어만을 고려에 넣고 있다. 그러나 다른 체계의 연구도 또한 커다란 중요성을 나타낸다. 이 소논문에서 필자는 시인이 시를 지을 때에 취급하는 언어체계에 대하여 그 심리 음성학상의 특성을 약간 지적하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체계를 ‘시적언어’라고 이름을 붙였다”(Якубинский(1919)/37)라고 하여 日常言語와 詩的言語를 분리하여 고찰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번째의 특징은 언어의 기술과 언어의 기능적인 면을 구별하려는 태도다. 이것은 당시에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된 音素의 정의와 관련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쉬체르바가 “質과 量의 점에서 본 러시아어의 母音”(Шерба:1912)이란 논문에서 “음소라고 불리는 것은 의미적 표상과 연합하여 말을 구별하려는(중략) 주어진 언어에서 최소의 일반적인 음의 표상을 말한다”(Шерба :1974/121)라고 하여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언어단위’라는 기능적인 음소의 정의가 포함되었다. 음운의 변천에 대하여도 “言語音(相)의 역사라는 것은 한편으로 意識으로부터의 어떤 음(상)의 구별이나 어떤 音素의 消滅에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종류의 紐양스를 자각하거나 어떤 새로운 음소의 출현에 귀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Шерба :1974/123)라고 하여 음운의 변천도 그 기능의 변화로 보았던 것이다. 이 때에는 아직 트루벤토이의 <음운론원리>(Trubetzkoy:1939)와 같은 음소의 기능적 관점을 보여주는 정의가 나오지 않은 때이므로 매우 선구적인 언어의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베제르부르그학파를 말할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은 드 소쉬르의 영향 관계다. 앞에서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이 주로 드 소쉬르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베제르부르그학파는 초기에 보드앵의 제자들에 의하여 창도되었기 때문에 드 소쉬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후일에 이르러서는 베제르부르그학파에도 드 소쉬르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소쉬르의 공시적인 연구는 비단 언어학만이 아니고 民族學・民俗學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하여는 야콥슨에 의하여 후일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러시아의 민속학자인 보가트레프(П.Г. Богатырев)가 자신의 <자칼파체의 呪術行爲・儀禮・信仰>(1929)에 대한 1969년판 서문에서 소쉬르의 영향이 러시아에서는 언어학만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이 책의 서문에서 “스위스의 언어학자 드 소쉬르의 共

時的(靜態的-synchrony) 언어 연구방법은 러시아 학자들에게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 이 책은 共時的(靜態的) 방법을 민족학·민속학적 사실에 적용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이미 1920년대 초엽에 필자는 우크라이나의 자갈파체지방의 민족학·민속학적 자료를 분석할 때에 공식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보았다. 1924년 프라하에서 열린 제1회 슬라브 민족학·지리학회에서는 「보드칼파체·르씨에로의 민족학적 조사여행. 정태학적 연구의 시도」라는 보고가 필자에 의해서 행해졌다”(Богатырев :1971/169)라고 하여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스크바로부터 퍼져나간 소쉬르의 언어학은 러시아 전역에 공식적 언어연구 방법의 열풍을 불게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뻬체르부르그학파의 태도는 매우 복잡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학파를唱導한 뿌리바노프는 ‘소쉬르에게는 어떠한 신기한 점도 있지 않다’라는 태도를 보인 반면 쉬체르바는 처음으로 접한 소쉬르의 언어학을 Щерба(1957/94~95)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23년에 레닌그라드(뻬체르부르그를 말함)에서 소쉬르의 <一般言語學講義>를 손에 넣었을 때에(중략) 우리들은 소쉬르의 학설에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여러 명제와 많이 일치하는 점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체계로서의 언어와 활동으로서의 언어(아마도 소쉬르의 랑구와 빠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를 구별하는 것은 소쉬르처럼 명료하고 심화된 것은 아니지만 보드앵에게도 고유한 것이었다. (중략) 더욱이 소쉬르에게 가장 특징적인 ‘共時言語學의 優位’는 보드앵의 학문활동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기초의 하나였다. 소쉬르가 강조한 언어의 記號의 性格에 대해서도 ‘意味論化 내지는 形態論化’라는 개념과 병행한 것으로 들 수가 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意味論化 내지는 形態論化’시킨 것, 즉 어떠한 기능을 가진 ‘記號’가 된 것만이 언어학적 사실로 간주될 수 있다. 세부적인 점에서 일치を 찾는다면 음상론과 형태론에 있어서 제로에 대한 학설을 위시하여 상당한 수효에 이를 것이다. 桑野隆(1979/51~52)의 번역에서 인용.

같은 뻬제르부르그학파에 속해있던 뷔노그라도프(V.V. Виноградов) 등도 쉬체르바와 동일한 의견을 발표하였다(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1963/12). 실제로 보드앵은 ‘살아있는 언어’에 관심을 갖고 현대언어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 예로 러시아 포말리즘 이전에 활약했던 新言語・文學硏究會를 들 수 있다. 이 연구회는 보드앵의 영향 아래에 있던 뵘세로프스키(A.H. Веселовский)에 의해서 창설되었는데 그는 보드앵과 매우 친한 사이였으며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학문을 교류하였다. 이 연구회의 설립목적은 현대의 살아있는 언어와 문학의 연구를 종합해서 살펴보려는 것으로 1895년에는 보드앵의 제자인 S.K. 불리치(С.К. Булич)를 우두머리로 하는 言語學部門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보드앵도 1901년에 뻬제르부르그에 옮겨와서는 바로 이 연구회에 직접 가담하여 가장 능동적인 회원이 되었고 그의 제자 쉬체르바도 이 활동에 참가하였다.

보드앵은 그의 까잔언어학 시대에 벌써 현대언어의 연구를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살아있는 植物相이나 動物相을 전면적으로 연구한 生物學者만이 古生物學的 痕迹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 살아있는 언어를 연구한 언어학자만이 死語의 특성에 관해서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1963/349)라고 하여 역사언어학은 현대언어학의 연구에 의하여 정밀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뻬제르부르그학파의 사람들은 소쉬르의 이론으로부터 혁명적인 언어 연구방법을 찾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恩師였던 보드앵의 先驅的인 언어연구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 같다. 보드앵의 이론에서 心理主義의 안개를 헤쳐버리면 굳이 소쉬르의 학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심리주의와의 투쟁이 그렇게 쉽지 않았으며 심리주의와 교체하여 바로 속된 사회학의 파도가 몰려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야콥슨을 대표로 하는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이 뻬제

르부르그학과보다 먼저 심리주의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모스크바쪽이 먼저 이러한 성과를 올린 것은 그들에게 보드앵의 영향이 간접적이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야콥슨 스스로가 말한 바와 같이 후서얼(Husserl, Edmund)의 現象學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Holenstein:1976).

야콥슨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科學體系 最上位의 위치에 現象學的 태도가 昇格하여 自然主義의인 어 프로치를 貫徹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언어학에서는 言語體系, 언어의 內的 構造, 언어의 여러 層位 사이에 존재하는 關係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드디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였다. 形態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한 定義가 流行이 되었고 焦點은 形態와 機能의 관계로 옮겨갔으며 음운론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의 개념이 차례로 언어학적 機能의 分析으로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言語變化에 있어서 內的 法則의 문제가 歷史言語學에서도 優先되었던 것이다. Holenstein(1976/3)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연구에서 현상학적인 경향이 구조주의, 기능주의, 공시적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야콥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소쉬르의 <一般言語學講義>를 읽고 감명을 받은 것은 “정말로 關係의 문제였다. 그것은 사물 그 자체보다도 그들의 관계에 주목하라는 점에서 분명히 브라크(Braque), 피카소(Picasso) 등의 立體派(cubist) 화가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畫法과 통한다”(L'ARC, 60, Roman Jakobson, 1975/51)라고 하여 선험적還元을 거쳐 얻어진 純粹意識을 本質에서 記述하려는 후서얼의 현상학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

## 2.4 바흐친의 언어학 비판과 마르크시즘 언어학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인간의 意識이 언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변문법학과의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Marx & Engels(1845~46)에서 마르크스는 “언어는 그 기원이 의식과 마찬가지로 오래이다. 언어는 곧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또 오직 그럼으로써만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의식이다. 그리고 의식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오직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려는 요구, 그러한 간절한 필요로부터서만이 발생한다”(번역 <독일 이데오로기> :1957/23, 김민수 :1985/100에서 재인용)라고 하여 언어는 인간의 의식과 함께 생겨났으며 인간의 사회적 접촉을 위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았다.

마르크스와 더불어 공산주의의 이론을 완성한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도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언어가 발생되었고 언어가 음성언어로 발전한 것은 인간의 사회적 접촉을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Engels(1935)에서 음성언어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면 형성 중에 있던 인간들은 서로 무엇인가를 말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필요는 기관을 만들어 냈다. 즉 원숭이의 발전하지 못한 咽喉는 완만하기는 하나 그러나 끊임 없이, 음조의 변화에 의하여 부단히 음조를 더 변화시키면서 개조되어 갔으며 구강 기관들은 점차로 유절음을 발음하는 것을 하나 하나 배워갔다”(번역 <자연변증법>:1966/53)라고 하여 필요에 의하여 음성언어가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유물론적 언어관은 러시아혁명 이후에 구소련에서 중요한 언어관으로 모든 언어연구의 기본이론이 되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Lenin, Владимир Ильич Ленин, 1870~1924)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쫓아 Ленин(1924)에



서 “언어는 인간 교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언어의 통일과 그 자유로운 발전은 현대 자본주의에 상응하는 진실로 자유롭고 광범한 상품 유통과 모든 개별적 계급에로의 주민의 자유롭고 광범한 집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다”(번역<민족자결에 관하여>:1958/496, 김민수:1985/100에서 재인용)라고 하여 언어는 인간 교섭의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산주의적 언어관은 구소련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을 전후한 1910~20년대의 러시아에서는 언어의 사회적 특징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一群의 연구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러시아 포말리즘을 주창한 사람들로서 사회의 혁명사상과 연관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학문적 경향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시대상황이 낳은 하나의 情熱이었다. 러시아혁명이 무르익은 1920년대에 예술가들의 左翼戰線인 레흐(Лев)가 결성되었고 이 가운데 언어를 프로레타리아 공산 혁명의 도구로써 역시 혁명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보려는 레닌의 견해에 추종하는 한 무리의 언어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언어연구를 ‘社會言語學的 研究’라고 부르고자 한다.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물론 오늘날 사회언어학과는 다른 것으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당시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급진적인 좌파 언어연구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혁명이전의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이나 빼제르부르크학파의 언어학자들을 망라하게 된다. 이 시대는 이론보다는 혁명의 수행이라는 정열이 앞섰으며 새로운 시대에의 커다란 몸부림이었다.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했던 1976년에 구소련에서 공간된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벽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이미 今世紀 初頭에 언어의 水平的 구분(지역적 구분)과 垂直的 구분(사

회적 구분을 말함이라는 견해를 보드옌은 開陳하였다. 그의 저서 가운데는 언어적 사실의 사회적 被制約性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언어의 發達·機能化,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過程·現象 등에 대한 것으로 이 쌍방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보리바노프, 야쿠빈스키, 세리시체에프, 뷔노크르, 지르문스키, 기타 등등의 20세기 前半에 傑出した 언어학자들의 저서가 발표되었다. <社會言語學的研究>(Социальн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 1976/3)

이로 보면 구소련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언어연구는 言語技術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언어를 목표로 한 것이다. 전술한 레흐에 모여든 언어학자들은 인간의 생활과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위하여는 언어도 함께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즉 드레차코프(С.М. Третьяков)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미래주의 전망->에서 “미래주의자의 最大 綱領이 생활 속에서 融解되어 새로운 生活樣式에 부응하는 언어의 意識的 再構成에 있다면 언어 연구에 從事하는 미래주의자의 최소 강령은 자신의 언어소재를 오늘의 실천적 과제에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Третьяков: 1923/202, 桑野隆: 1979의 번역 참조)

이와 같은 혁명 전후 러시아의 언어연구는 혁명에 수반되는 사회 개혁의 수단으로써 언어를 도구화하고 민중을 선동 선전하는 技術로써의 언어연구가 자리잡게 된다. 이것은 언어의 연구가 고대 로마시대의 修辭學으로 전락됨을 말한다. 전술한 빼쎄르부르크학파의 언어 학자였던 야쿠빈스키는 “學問의 任務는 현실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改造하는 데 있는 것이다. 言語學은 학교에서의 언어교육이라는 실천적인 연구를 위하여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여 왔고 또 지금도 그것을 제공하는 있는 이상 얼마간 그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의 중요성, 즉 응용적 가치는 대중을 앞에 두고 연설하는 말이나 공중을 향한 글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서 그 생활로부터 조건이 붙여졌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이었던 언어활동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훨씬 증대할 것이다. 말의 技術이라는 것은 말의 技術學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말의 기술학이라는 것은 현대의 과학적인 언어학이 스스로 뱃속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현실이 시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Якубинский:1924/71~73)라는 언급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언어연구 경향은 바흐친에 와서 일단 정리되고 체계화된다. 바흐친의 생애는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여기서는 죠셉 프랭크의 <바흐친의 생애와 사상>(Frank: 1990, 여홍상 번역:1995)에서 그의 생애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 보기로 한다. 1895년에 태어난 미하일 바흐친(Михаил Бахтин, Mikhail Bakhtin)은 오랜 러시아의 귀족 집안이었다. 그의 조부는 은행을 설립했고 부친도 은행업에 종사하였다. 부모들은 교양이 있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이었으나 자식들에 대하여는 사려 깊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에게는 세명의 누이와 한 명의 형이 있었는데 형인 니콜라이(Николай)는 영국에 망명하여 버밍엄대학의 언어학 교수를 지냈다. 바흐친 형제는 어려서부터 독일어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언어를 교육받았고 특히 독일어 교사로부터 고전에 대한 흥미를 배우게 되어 두 형제가 모두 古典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흐친이 희랍과 로마 등의 고전문학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은 이 때의 교육에 힘입은 바가 많다. 그의 형인 니콜라이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과 친구였다고 하며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여홍상 번역:1995/19).

바흐친은 1914~18년에 뻬제르부르그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여기서 그의 평생의 스승인 젤린스키를 만난다. 폴란드계 고전학자 F. 젤린

스키(Zelinsky)는 당시 국제적으로 고전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또 바흐친은 평생 마르틴 부버를 존경했고 그를 당시대 유일한 철학자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1918년에 대학을 졸업한 바흐친은 네벨이란 시골 마을과 비테부스크의 고등학교에서 교편도 잡았고 강연이나 경제 자문, 때로는 회계사의 일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어릴 때부터 관절염을 앓았기 때문에 환자로서 연금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의 정규수입은 이것뿐이었으며 현실적인 부인의 절약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가 있었다. 4년후 바흐친은 베제르부르크로부터 이름이 바뀐 레닌그라드로 이주하였다. 이곳은 그가 대학시절을 보낸 곳으로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음악가, 작가, 자연사가, 문학가,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클라크와 홀퀴스트는 이 그룹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바흐친 그룹은 결코 고정된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친구들로서 집단으로 만나서 서로가 생각하는 바를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철학적인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다.(중략) 이들이 다루었던 주제는 광범위했으며 프루스트, 베르그송, 프로이트와 신학적인 문제를 포함하였다. 때로는 한 사람이 다른 참석자를 위하여 강연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흐친이 1925년에 8번이나 행한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대한 강의였다. Clark & Holquist(1984/103), 여홍상 번역(1995/22) 참조.

이를 보면 시월혁명 이후 소련의 통치이념이었던 마르크스주의와 거리가 있다. 특히 神學에 대한 관심은 유물론적인 마르크스-레닌 사상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당시 러시아 정교를 신봉하는 그룹인 부활(voskresenie)이 있었으며 이 그룹의 일원인 페도토프(Georgey P. Fedotov)의 증언에 의하면 이 그룹에서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는 유대-기독교의 종말론적 한 분파로 보았으며 공산주의적 이상을 초대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시월혁명은 짜르 체제하에서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던 교회를 해방시켰으나 얼마후 러시아정교의 교부들은 다

시 교회에 대한 국가의 일시적 권한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대하는 요셉분파가 생겨났다. 요셉파는 교회가 다시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비밀회합이 자주 열렸다. 바흐친도 이 회합에 참여하였고 급기야는 요셉분파로 몰려 1928년 체포되어 북극의 솔로베츠키 섬에서 수감형을 받았다. 그러나 알렉세이 톨스토이와 막심 고리끼 등의 구명운동이 있었고 당시 계몽인민위원이던 A. 루나차르스키(Анатол Руначарскы)의 호의를 얻어 4년간 카자크스탄으로 유배형을 받았다. 루나차르스키는 그 자신도 문학가로서 바흐친의 학문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카자크스탄의 유배지에서 서고지기도 하며 회계사의 일도 하고 집단농장의 간부에게 경제를 교육하기도 하면서 6년간을 보냈다. 1936년에 그는 유럽계 러시아의 한 시골 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1년후 숙청을 두려워 하여 일시 사직하고 모스크바에 돌아와 박사 학위 논문을 집필하였다. 어릴 때부터 앓던 骨髓炎이 1923년부터 더욱 악화되어 결국 1938년에 다리를 절단하였다. 2차대전 중에는 모스크바 근처의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교육하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먼저의 사범학교로 돌아왔으며 이 학교가 대학이 되어 1961년에 은퇴할 때까지 여기에서 러시아어 및 외국문학의 교수로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前歷이 있기 때문에 그가 체포된 이후의 많은 저서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특히 체포 직후에는 그의 제자이기도 하며 친구인 볼로쉬노프(В.Н. Волошинов)와 메드베제프(П.Н. Медьцев)의 이름을 빌려 그의 저서를 간행하였다.<sup>11)</sup> 1929년 도스토예프스키의 연구서가 겨우 그의 이름으로 간행되었으나 이미 1928년에 볼로

11) 예를 들면 V.N. 볼로쉬노프의 <맑스주의와 언어철학>(1927년 간행)와 <프로이트주의: 맑스주의 비판>(1927), 그리고 P.N. 메드베제프의 <문학연구의 형식적 방법>(1928) 등을 들 수 있다.

쉬노프의 이름으로 그의 업적이 간행되기도 하였다(Волошинов:1928). 1940년에 그는 학위논문인 라블레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였지만 논문 심사는 전쟁이 끝난 이후로 미루어졌고 이 논문의 공간은 1965년에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졌다(Бахтин:1965). 이 논문은 교수들의 격렬한 논쟁이 있는 후에 결국 심사에서 떨어졌고 국가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1975년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시대에 활약한 바흐친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운한 생애를 살았으며 체포와 유배, 숙청의 공포 속에서 살아간 혁명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바흐친을 마르크스주의 비판자로 보려는 견해가 정설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본고에서는 당시 시대상황으로 보아 소련 혁명의 와중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입각한 언어연구를 가장 본격적으로 전개한 언어학자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바흐친은 볼쉬노프의 이름으로 간행한 <Марксизм и Философия языка -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го метода в науке о языке>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언어학에 있어서 사회학적 방법의 기본적인 제문제->)(Волошинов:1929)에서 기존의 언어이론을 포함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전통적인 언어의 연구 방법을 비판하고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언어연구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언어철학은 위의 책에서 종합되었으며 여기서 개진된 그의 이론은 구소련의 언어학자들에게 계승되어 스탈린에게 영향을 주었다. 비록 혁명시대에 투옥의 경험이 있어 그의 이론은 매우 조심스럽게 젊은 학자들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그 출판도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소련에서 그 이론의 본질은 1975년까지 중심적 언어사상이었다.

그의 저작물들은 그의 친구이기도 하며 또 제자이기도 한 볼쉬노프(Волшинов)와 메드베제프(Медведев)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 많다. 그러나 이들 저서에 바흐친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 볼쉬노프의 이 책은 1930년에 제2판

이 나왔지만 내용상의 변화는 없고 誤字가 정정되었다든지 제본 스타일의 변경 등으로 페이지수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 책에서 바흐친은 먼저 이데올로기적 형성물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학문의 기초 그 자체, 즉 ‘과학론, 문예학, 종교학, 도덕학’ 등의 기초 그 자체는 매우 긴밀하게 언어철학의 문제와 서로 얽혀있다고 보았다.

일체의 이데올로기적 소산은 物體나 생산용구, 소비재와 같이 자연 및 사회의 현실적인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과는 다르게 그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현상을 비쳐서 굴절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모든 이데올로기적이란 것에는 의미가 갖추어져 있다. 이데올로기하는 것은 그 외부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形容하기도 하며 그것을 대리하는 역할을 갖는다. 즉 ‘記號’가 되는 것이다. “記號가 없는 곳에는 이데올로기도 없다”라는 것이 바흐친의 宣言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체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에는 記號的 意味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 “記號로 되었다는 점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現象도 共通이다”라고 보았으며 “말은 우수한 이데올로기적 기호”라고 결론하였다.

그는 전술한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의 제1장에서 ‘이데올로기적 記號와 意識’, ‘말의 이데올로기적 중립성’에 대하여 논하고 제2장에서는 ‘土臺와 上部構造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와 언어와의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언어철학과 객관적 심리학’이란 제목으로 심리학의 견지에서 본 언어 문제를 다루었고 內的記號(=내적 언어)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고찰하였다.

바흐친에 의하여 주장된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의 갈 길은 제2부에서 논의되었는데 제1장에서는 주로 언어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객관적 견해의 장단점을 살피고 통시언어학과 공시언어학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 소쉬르의 랑가지, 랑구, 빠롤에 대하여 언급하면

서 이를 변증법적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당연히 언어의 의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3장에서는 단일한 일정의 의미는 전제로서 ‘발화’에 속한다고 보아 이를 ‘테마’라고 명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 ‘테마’의 의미론적 고찰이 구체적으로 고찰되었으며 의미와 인식의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제3부에서는 ‘간접화법과 직접화법 및 그 변형’이란 제목으로 언어연구에서 표현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주로 문체론적인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해방후에 북한에서 왜 문체론적인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북한의 국어연구에서 서양언어이론의 도입은 제정러시아로부터 구소련에 걸쳐 발달한 러시아 전통적인 언어학과는 별도로 이데올로기 언어연구로 시작된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이 영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북한 정권 수립 초기에는 마르크주의 언어학도 당시 젊은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바흐친의 언어·문학·철학이론이 서방세계에 알려진 것은 그가 죽은 이후의 일이었으며 이론가로서 바흐친의 폭 넓은 중요성을 인정한 서방 세계의 최초의 연구로서 1976년에 나온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언어, 대화 그리고 소설”(〈기호학〉, 파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81년 츠베탕 토도로프는 바흐친의 저작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홀퀴스트와 에머슨이 편집하여 프랑스어로 번역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Davis:1975, 여홍상 역음:1995/186). 이후 주로 문학가로서 바흐친에 대한 서방세계의 연구가 뒤를 이었으나 그의 언어 연구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다.

바흐친은 당시의 언어철학, 즉 일반언어학의 流波를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그 첫째는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에서 포슬러(Karl Vossler:1872~1947)에 이르는 「개인주의적 주관론」의 언어관을 가진 언어연구의 경향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



은 4개의 기본명제를 갖고 있었다.

- ① 언어라는 것은 활동이며 개인의 발화행위에 의하여 끊임없이 창조되는 프로세스, 즉 에네르게이아(energeia)이다.
- ② 언어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은 개인심리학의 법칙이다.
- ③ 언어창조는 창조예술과 같으며 의미가 있는 창조다.
- ④ 기성의 소산(ergon), 안정된 체계(어휘, 문법, 음운조직)로서의 언어는 말하자면 생기를 잃어버린 지층이며 언어창조의 응고한 용암이다. 언어학자는 이것으로부터 기성의 도구로서의 언어를 실용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추상적 구조물을 만든다.

(Волюшинов:1929/59, 桑野隆:1989/72~73의 번역 참조)

이에 대하여 데카르트, 라이브닛쯔에서 시작되어 소쉬르에 이르는 제2의 유파는 「추상적 객관론」의 언어관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은 다 음과 같이 기본 명제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언어형태의 체계이고 개인의식은 그것을 기성의 것으로 찾아내어 의문을 품을 수가 없다.
- ② 언어의 법칙이라는 것은 주어진 폐쇄적 언어체계내에서 言語記號間의 관계에 대한 특수한 언어학적 법칙이다. 이러한 법칙들은 모든 주관적 의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것이다.
- ③ 특수한 언어적 관계는 예술적이거나 인식적인, 또는 기타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가치와 아무런 공통점도 있지 않다.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동기도 언어현상을 근거로 붙이지 않는다. 말과 그 의미 사이에는 의식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관계라든지 예술적인 관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④ 개인의 발화행위는 언어의 편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우연한 굴절이나 변화, 혹은 단순한 歪曲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발화에서 이러한 행위야말로 언어형태의 역사적 변화, 그 자체의 언어체계에서 본다면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언어의 체계와 그 역사 사이에는 관련성도 동기의 공통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이다.

(Волюшинов:1929/69~70, 桑野隆 翻譯:1989/85~86 참조)

그리고 바흐친은 이어서 “여기에서 명백한 것처럼 上記의 언어철학 사상의 제2유파에 보이는 네 개의 기본명제가 제1유파의 기본명제에 대응되는 안티테제(antithese)가 되었다”(Волошинов:1929/70, 桑野隆 翻譯:1989/86)라고 하여 제1유파와 제2유파의 구별기준을 말하고 있다. 바흐친의 이러한 2분법은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도 「主觀心理學」과 「客觀心理學」이라는 형태로 채용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언어학에만 제한한다면 소쉬르의 연원을 데카르트까지 소급한다는 점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는 “합리주의 전체에서 특징적인 것은 언어가 約束에 근거하고 있으며 恣意的이라는 생각이다. 또 언어체계와 수학적 기호 체계와의 對照도 그 특징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기호는 그것이 반영하는 현실, 혹은 그것이 產出하는 개인에 대하여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미 받아들여져서 인정된 폐쇄 체계 내에서 記號對 記號의 관계가 수립된다는 것이 수학적 사고법을 가진 합리주의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것은 代數學에 있어서도 같은 모양으로 기호를 가득 채우고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이 받아들인 記號體系 그 자체의 내적논리에 지나지 않는다”(Волошинов:1929/70, 桑野隆 翻譯:1989/86~87)라고 하여 바흐친은 소쉬르의 밑바탕에 있는 철학적 기초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의미의 문제에 대하여도 “의식은 사회적 교류의 과정에서 조직된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호의 물질성 안에서 형성된다. 의식에서 기호성-이데올로기적 적용-을 배제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다. (중략) 기호의 물질성을 벗어나서 영혼은 없는 것이다. (중략) 그 실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영혼은 유기체와 외부 세계의 두 영역을 분리하는 경계선에 국한되어 있다”(Волошинов:1929/13~26, 桑野隆:1989/17~22)라고 하여 언어 의미의 연구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이 번뜩이고 있다. “(전략)말은 훌륭한 이데올로기적

현상이다. 언어의 현실성은 기호로서의 기능에 盡力시키는 것이다. 말에는 이러한 기능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기능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란 가장 순수하고 매우 정밀한 사회교통의 매체다”(Волюшинов:1929/18, 桑野隆 翻譯:1989/22 참조)라고 하여 언어는 기호로서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보려는 유물론적 언어관을 보여준다. 그리고 종래 언어철학의 주요한 결점에 대하여 언어학자·문체분석자·현상학자들이 공유한 결점은 언어 혹은 의식과 그 대상 혹은 그 주제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전제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잘못으로 보았고 말하는 실제 상황 속에서 의미는 파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것 역시 종래의 언어학을 근본부터 바꾸려는 혁명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흐친 학파는 소쉬르에 대하여도 같은 공격을 가하였다. 바흐친의 평생에 걸친 언어연구에서 언어낸 신념은 언어학, 특히 소쉬르적 언어학은 談話 분석의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담화의 연구는소쉬 과학적 분석의 목표를 지향하는 데카르트적인 전제에서 고안된 랑그(langue)의 추상성에 근거하기 보다는 실제로 쓰는 언어, 즉 빠롤(parole)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볼로쉬노프의 이름으로 간행된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Волюшинов:1929)에서 바흐친은 웨르디낭 드 소쉬르와 칼 포슬러에서 시작된 현대언어학의 서로 다른 언어 연구의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게르만어 편에서 영향력이 있는 포슬러학파는 낭만주의 전통과 빌헬름 폰 훔볼트의 사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역동적이고 역사적 삶을 구성하는 언어의 개인적 활용을 강조한다. 이것은 바로 소쉬르의 빠롤(parole)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전제를 바흐친은 비판하였다. 그러나 포슬러 학파가 가진 역사에 대한 관심과 언어학이 문체론과 구별됨을 강조한 것은 가치가 있는 시도라고 인정하였다.

소쉬르의 추상적 객관주의에 대하여 바흐친은 더욱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언어에 관한 사회성과 역사성의 모든 문제를 단순히 랑가지(language)란 추상적인 언어로 묶어서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였다. 또 언어를 공시적인 언어체계인 랑구와 개별화자의 언어사용인 빠물로 양분하는 것은 제한적인 타당성만을 가질 뿐 담화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장애를 주며 특히 랑구의 추상성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언어학을 규범에 따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된 안정된 공시적인 체계라는 脫歷史的인 개념에 고정시키므로써 소쉬르는 다른 언어학자와 문헌학자들과 공유하는 관점을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하였다. 소쉬르에게 있어서는 문헌학자들의 언어연구란 현재 쓰고 있는 언어가 사회 생활 속에서, 또는 언어의 관용적인 어투에 의하여 변화를 겪는 모습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언어를 재구성하고 이를 집대성하여 교육하는 데에만 적절한 전제를 근거하여 세워진 언어의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바흐친은 그의 공시론 위주의 연구태도를 매도하였다(LaCapra :1984). 그는 “러시아의 두 언어학과, 즉 포르투나도프학과와 소위 까잔학과(보드앵과 크루제프스키의)는 우리들이 윤곽을 보여준 언어철학 사상의 제2유파의 범주에 완전히 들어간다”(Волошинов:1929/72)라고 하여 이 두 언어학파가, 특히 후자가 구조주의 언어학의 先驅였음을 인정하였다.<sup>12)</sup>

그러나 바흐친은 제1·제2유파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먼저 제2유파는 “화자에 있어서 언어형태가 중요한 것은 안정되고 항상 자기와 동일한 信號로서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쉽고 탄력성이

12) 바흐친이 까잔학파의 보드앵 드 쿠르트네를 비롯하여 빼체르부르크학파를 일괄해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능의 다중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 두 학파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빼체르부르크학파의 경우는 훔볼트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있는 記號로서 필요한 것이다. (중략) 신호라는 것은 내적으로 고정된 단일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반영하지 않으며 굴절시키지도 않는다. 어떤 일정한, 또는 부동의 대상이나 어떤 행위를 지시하는 技術的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신호는 어떤 경우에도 이데올로기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고 技術的 裝置의 세계, 넓은 의미의 生産用具에 속한다”(Волюшинов: 1929/81~82, 桑野隆 翻譯:1989/100~101)라고 하여 언어를 기호로서, 그것도 기술적 수단이며 생산 용구로 본 것이다. 이것은 뵐베니스트(Venvenist:1969)의 생각과 흡사하다.

제2유파의 추상적 객관론에서 주장된 언어는 규범적으로 동일한 제형태의 체계였으며 이것은 죽은 언어를 해독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론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정당화된 추상화라고 보았다. 제2유파에서 주장된 언어체계는 “언어현상을 그 현존과 생성 가운데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없다. 반대로 그것은 언어가 살아서 생성하는 현실이라든지 그 사회적인 기능에서 멀어지게 된다”(桑野隆 翻譯:1989/122)라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추상적 객관론의 일논적 기초가 된 것은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근거로 하기에는 가장 무력한 합리주의요 기계론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은 완전히 역사적인 현상이다”(桑野隆 翻譯:1989/122)라고 하여 추상적 객관론이 주장한 공시적 연구의 우월성을 비난하였다.

반면에 제1유파의 개인주의적인 주관론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바흐친은 “개인주의 객관론이야말로 말의 진정한 현실을 파악하는데 성공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가운데 있어서 제1유파와 제2유파의 사이, 개인주의적 주관론의 테제와 추상적 객관론의 안티테제의 사이에서 타협하여 존재할까? 진리는 중용에 있지 않으며 테제(these)와 안티테제(antithese)의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도

아니다. 진리는 그들의 저편에 존재하는 것으로 테제도 안티테제도 부정한 것, 즉 변증법적인 신테제(synthese)에 있다”(桑野隆: 翻譯: 1989/123)라고 하여 개인주의적 주관론은 하나의 테제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다. 개인주의적 주관론은 언어가 사고나 의식의 매체로서 언어를 상징하며 독백적인 발화도 현실로 인정되었다.

바흐친은 언어의 개인성과 창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와 못지않게 언어의 사회성이나 상호작용을 중시하였다. “말의 행위, 혹은 좀더 정확하게 그의 소산은(발화) 엄밀한 의미로서 개인적인 현상이라고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또 말하는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심리, 또는 정신심리학적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발화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중략)개인의 언어는 말하는 상대를 향한 것이며 말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를 연결하는 교량이다”(Волошинов: 1929/102, 桑野隆 翻譯: 1989/123~124)라고 하여 언어의 사회성을 중시하였다. 그는 언어(=말, language)의 진정한 현실이 되는 것은 언어형태의 추상적 체계도 아니고 고립한 독자적 발화도 아니며 그 현실의 심리·생리적 행위도 아닌 발화로 실현되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았다. 즉 언어의 사회적 효과를 궁극적인 언어작용으로 본 것이다.

이로부터 그는 언어연구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언어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조건과 관련된 언어적 상호작용의 형태와 타입.
- (2) 긴밀하게 연결된 상호작용의 제요소로서의 개별적인 발화, 개별적인 말의 운용의 제형태, 즉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규정된 생활이나 이데올로기적 창조물에 있어서 말의 운용의 여러 양식.
- (3) 이것을 기초로 하여 언어형태를 그 통상적인 언어학적 해석에 있어서 재검토할 것.

(Волошинов: 1929/114, 桑野隆: 1979 번역 참조)

바흐친은 이러한 순서로 언어가 실제로 생성된다고 보고 “말의 현실로 된 것은 언어형태의 추상적 체계도 고립한 발화도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정신생리학적인 행위도 아니며 발화에 의해서 실현된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사회적 사건이다. (중략) 社會的 交通이(土臺를 기초로 하여) 生成하며 그 안에서 언어적 意思疏通이라든지 相互作用이 생성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말의 운용의 제형태가 생성된다. 그리하여 이 후자가 결국은 언어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Волошинов:1929/114, 桑野隆 翻譯:1989/145~147)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언어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태도는 ‘對話’에 의하여 언어의 진정한 역할이 이루어진다고 보게 되며 의미도 대화 속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하여 우리들은 발화 가운데에서 분리 가능한 意義的 要素의 각각, 또는 전체로서의 발화를 응답이 있는 능동적인 콘텍스트에 옮긴다. 모든 이해는 대화적이다. 이해는 대화에서 한편의 말이 다른 말에 對峙해서 있는 것처럼 발화에 對峙해 있다. 이해라는 것은 화자의 말에 대치하고 있는 말을 찾으려는 것이다”(Волошинов:1929/123, 桑野隆 翻譯:1989/158 참조)라 하여 독백이 아니고 대화로서의 말을 파악하려 했던 言語學史上 매우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은 당연히 언어의 外言(발화되는 말)과 內言(머리 속에 잠재된 말)의 구별을 가져오고 내언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바흐친 “내언은 말의 마이너스음이 아니라 그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전혀 특수하고 독자적인 기능으로 간주해야 한다. 내언의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 전혀 다른 통사구조다. 외언에 비하면 내언은 외견상 단속성, 단편성, 생략성을 갖는다”(Выгодский:1956, 柴田義松 翻譯:1964)라고 하여 내언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對話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 바흐친에게서 특징적인 것은 마르크스주의적 기호학을 창

시하였다는 점이다. 요즘에는 언어학과 기호학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흐친은 자연의 물체, 생산수단, 혹은 소비물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소산에는 ‘記號性’이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意味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그 외부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묘사하며 그에 의하여 변한다면 그것은 ‘기호’라고 할 수 있다. 기호가 없는 곳에는 이데올로기도 없다”(Волюшинов:1929/18, 桑野隆 翻譯:1989/14~15)라고 하여 모든 이데올로기는 기호로 표시된다고 본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기호의 주요한 특징은 어떤 물질적 사물과 의미와의 결합이다. 이것은 소쉬르가 생각한 “언어라는 것은 기호의 체계이며 그곳에서는 意味가 聽覺映像과의 合一 이외에는 본질적인 것은 없고 또 그와 같은 기호의 두 부분은 같이 심리적이다”(Saussure: 1972/32)라 하여 言語學을 포함하는 記號學을 社會心理學의 일부분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一般心理學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바흐친은 이에 대하여 “모든 기호적·이데올로기적 현상은 소리, 물체, 색깔, 몸의 움직임 등으로서 무엇인가 물질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의미로서 기호의 현실성은 충분히 객관적인 것이며 유일한 일원론적인 객관적 연구방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기호라는 것은 외적 세계의 현상인 것이다”(Волюшинов:1929/17)라고 하여 기호의 심리학적 접근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역시 기호연구의 유물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바흐친의 마르크스주의적 언어관을 확인할 수 있다. 바흐친은 ‘이데올로기적 기호의 철학으로서 언어철학’을 주장한 것이다.



## 2.5 마르주의 언어학

N.Ja. 마르(Marr, Николай Яковлевич Марр, 1864~1934)의 新奇한 언어연구를 마르주의 언어학이라고 부른다. 러시아혁명 이후 수년 동안은 전술한 포르투나토프학파의 전통이 계속되었으나 혁명의 새로운 기운이 언어학에도 불어닥쳤다. 마르주의 학파는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사조에 의한 언어연구를 주도하였으며 후세에 이러한 언어학의 연구 경향을 마르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다. 엔.야. 마르는 니콜라스 포페의 <回想錄>(Poppe:1983)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되었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만난 학자 가운데 니콜라스 야코블레비치 마르가 있다. 그는 아르메니아어와 그루지아어에 정통한 뛰어난 문헌학자로서 유명하였다. 그는 스코트랜드 출신의 庭園師와 구르지아인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나서 구르지아어를 구르지아인처럼 말하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母國語였기 때문이다. 1920년대 후반에 '新言語學'의 창시자로서 유명하게 되었다. (중략) 구르지아인을 어머니로 가진 混血兒이며 구르지아어를 매우 잘 말한다고 하여 마르는 스탈린과 아는 사이가 되었고 스탈린과 모국어로 대화하였다. 그가 스탈린에게 매우 사랑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다(村山七郎 翻譯:1990/69~70).

엔.야. 마르는 소장문법학파의 전통 속에서 수학하였으며 코카사스 제언어의 역사적 연구에 전념하였다. 후일에 일반언어학에도 관심을 가졌으나 오늘날에 그의 이론은 별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르는 非印歐語 자료를 접하고 자극을 받아 여러 언어의 상호관계, 특히 언어의 기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언어의 기원에 대한 마르의 생각은 이탈리아의 언어학자 트롬베티(Trombetti) 등에 의하여 제창된 一元起源說(Monogenesis)과 일치한다.<sup>13)</sup> 마르는 오늘날 존재하는 언어의 유

13) A. 트롬베티(Trombetti, Alfredo)는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활약한 신언어학(Neolinguistics)의 추종자로서 세계의 모든 언어는 하나의 공통언어에서

형은 모두 하나의 기본언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모든 언어는 단계적 언어변화에 의해서 발전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높은 단계의 언어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소위 언어 발전단계론(stadialism)으로서 오늘날에도 최고의 발전단계에 도달한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 사이에는 현저한 유형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언어간에는 명확한 계층적 서열이 있으며 현존하는 언어들은 상위와 하위로 구분되는 계층 서열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인구어가 그 최고의 발전단계에 있는 언어들이라고 본 것이다(Ivič:1970/ § 199~ § 202).

1924년에 마르는 자신을 언어학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투사라고 선언하였다. 1926년에 그는 자신의 초기 저술에서 주장한 생각들을 포기하였으나 언어의 일원기원설이나 야페트설(Japhetic theory)에 관한 주장을 단념한 것은 아니다.<sup>14)</sup> 오히려 언어는 분명하게 계급적 특성을 가진 사회적 경제적 상층구조라는 생각을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언어의 발전에서 보이는 각 단계는 각기 사회적 경제적 정황에 의하여 좌우되며 언어의 구조는 사회의 구조 및 그 경제적 기반과 더불어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의 여러 범주들은 다른 모든 형태의 상층구조와 같이 현실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

---

발전했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이것이 후일에 유명한 일원기원설(monogenesis)이다. 이 이론은 그의 “언어의 일원기원설(L'unità d'origine del linguaggio, Bologna, 1905)”에서 주장된 것으로 후세에 커다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 14) 야페트설(Japhetic theory)은 언어발전 단계설에서 인구어와 셈어보다 하위의 발전단계에 있는 언어를 야페트어군이라 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발전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야페트어군의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인구제어의 선사 시대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마르의 생각을 야페트설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야페트어군이 어떤 언어들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마르는 처음에는 코카서스제어만을 야페트어군으로 보았다가 후일에 점점 확대하여 교착적인 문법구조의 언어를 포함시켰다(Ivič:1970/ § 201~ 202).

문에 언어발전은 어느 단계에서는 다음 단계로 항상 혁명적으로 비약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형태와 문화수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직접 새로운 언어체계의 창조를 유도한다고 보았다(Ivič: 1970/§203). 모든 언어는 혼합과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며 언어는 국가와 같은 정치단체의 흥망성쇠와 보조를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여러 언어의 부단한 혼합이 언어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마르의 생각은 스탈린의 後光을 입고 구소련의 언어학을 지배하고 모든 언어의 이론적 연구에 군림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로부터 적지않은 폐해가 생겨났다. 마르는 고전문법에서 중요한 테마였던 祖語의 재구는 무가치한 虛構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術語와 개념은 완전히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소련에서는 한동안 고전적 비교문법의 연구가 쇠퇴하였고 언어사의 연구가 몰락하게 되었다. 마르의 학설에는 마르크스-엥겔스의 계급이론이 가미되었다. 그리하여 민족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있는 것은 계급어뿐이라고 보았다. 어떤 문화에도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두 문화층이 있는 것처럼 언어도 혼합과정에서 생겨나므로 착취계급의 언어와 피착취계급의 언어라는 두 개의 공존하는 언어를 갖고 있으며 피착취자의 언어는 착취자의 언어를 언젠가는 정복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하였다(Ivič:1970/§205).

1934년 마르가 죽은 뒤에는 '언어·사상연구소'를 중심으로 그의 이론이 전개되었다. 이 때의 지도자는 I.I. 메쉬차니노프(Meščaninov, И.И. Мещанинов)였으며 마르의 이론은 주로 이들에 의하여 1930에서 40년 사이에 완성되었다. 마르주의 언어학은 구소련에서 고전적인 언어학의 전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하였으며 서방세계나 다른 곳의 주요한 언어학 사조와도 단절되게 하였다. 구소련은 마르주의 언어학에 의하여 언어연구에 심대한 손실을 입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릇된 하나의 학설을 무리하게 발전시키려고 함으로써 일어난 손실 이상의 것이었다. 러시아로부터 전승된 언어학의 전통은 이들에 의하여 단절되고 파괴되었으며 또한 그 이론들이 왜곡되었다. 다만 단어의 의미 문제를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구소련내의 비인구어 자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메쉬차니노프의 이론을 비롯하여 마르주의 이론이 북한에 소개되었다. 즉 평양에서 1949년에 간행된 북한에서의 국어연구를 대변하는 기관지 <조선어연구>에는 마르주의 이론을 비롯하여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논문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어연구> (제1권 제2호/63~94)에는 이.이. 메쉬차니노프가 쓴 “新言語理論發展의 現段階”가 김수경에 의하여 번역되어 게재되었다.<sup>15)</sup> 또 <조선어연구> 창간호(1949. 4)에는 에스. 데. 까즈넬손의 “쑤베트 一般言語學의 三十年”(창간호/99~125)이 실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당시 소련의 언어학이 마르주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까즈넬손의 이 논문은 원래 <소련 科學 아카데미야 文學·語學 分科 機關誌>의 1947년 제5호에 수록된 것을 金壽卿이 번역하여 수록한 것으로 마르주의 언어학에 관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主義 言語學의 基本的 諸問題 研究에 있어, 부르주아 言語學의 理論的 基礎 批判에 있어, 巨대한 役割을 논 것은 아카데미야 회원 Н. Я. 마르에 의하여 創造되고, 아카데미야 會員 И. И. 메쉬차니노프에 의하여 繼承되어 本質的인 몇 가지 點에서 補充된 新言語理論이었다(原註-新言語理論의 發展段階에 關하여는 Н. Я. 마르 選集 第1卷: 아카데미야 會員 И. И. 메쉬차니노프: 新言語理論, 레닌그라드, 1936, 序說章 參照). ‘야페트 學說’로부

15) 이 글은 구소련의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에서 간행한 메쉬차니노프의 <신언어 이론 발전의 현단계>(1948)를 대본으로 하여 김수경이 이를 번역하였다고 함.

터 자라난 Н.Я. 마르의 言語學 理論은 初期에 있어는 避히지 못할 그 모든 缺點과 誤謬에도 不拘하고, 다른 어떠한 言語學의 見解보다도 마르크스主義에 接近하여 있었으며, 그 以後의 自己批判的 成長 가운데에, 內包한 缺點 克服과 基本的 命題 및 研究手法의 精密化로써, 分散된 努力의 集結과 쑤베트 言語學의 鞏固化를 促進시켜, 永久히 우리 時代의 先進的 科學 方向의 빛나는 上臺로 되었다. <조선어연구> 창간호 pp.104. (띄어쓰기, 철자법, 한자는 원문대로. 다만 고유명사의 底線은 하지 않았음. 이하 같음)

또 <조선어연구> 제1권 제6호(1949. 9)에는 역시 김수경에 의하여 И.И. 주께르만이 쓴 “Н.Я. 마르와 쑤베트 언어학”(pp.89~130)이 번역되어 북한학자들에게 마르크주의 언어학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원래 1946년 12월 4일자 <프라우다>紙에 실린 것을 전술한 메쉬차니노프의 논문처럼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에서 1948년에 <新言語理論 發展의 諸段階>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간행하였는데 이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마르크주의 언어학이 서구라파의 언어학과 다른 마르크스-레닌의 사상에 따른 언어학임을 자부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쑤비트 言語學 前進의 길을 개척한 것으로 또 하나의 決定的 契機가 存在한다. 쑤베트 言語學者들에는 強力한 武器—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論이 맡겨져 있다. В.И. 레닌과 И.В. 스탈린의 同時代人이며 그 弟子인 쑤베트 言語學者들은 外國 正統科學에 支配的인 부르주아 形式主義의 鐵鎖로부터 解放되어있다. (중략)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이론은 Н.Я. 마르에게 靈感을 주었으며, 엔.야. 마르의 後繼者들인 쑤베트 言語學者들에게 앞질러 引導하는 새 別로 되어 있다(김수경역, <조선어연구> 제1권 6호, pp. 127).

이 글을 보면 마르크주의 언어학을 단순히 중요한 언어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의 언어학과 대립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언어학적 성과는 결코 배척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즉 같은 글에서 “쑤베트 言語學은 巨大한 言語學的 遺産의 利用을 결코 拒否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금도 拒否하

지 않고 있다. 쏘베트 言語學 앞에 나선 課業의 遂行은 낡은 言語學의 批判的 改造과 그 모든 成果의 利用을 豫想한다”라고 하여 기존 언어학의 성과도 수용함을 천명하고 있다.

<조선어연구>는 해방 이후 북한의 ‘말과 글에 지도적 역할을 할만한 잡지’(1949년 3월 1일자李克魯의 創刊辭에서)로 간행된 것으로 국어연구의 전문학술지의 성격을 가진 잡지다. 여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창간호부터 구소련의 마르주의 언어학을 소개하였으며 거의 每號에 마르주의 언어이론을 싣고 있었다. 예를 들면 창간호에 실린 S.D. 까즈넬손의 “쏘베트 一般言語學의 三十年”(이 논문은 소련 과학 아카데미야 문학·언어학 분과 기관지의 1947년 제1권 제5호에 실린 것을 김수경이 번역한 것임)과 “쏘베트 언어학의 당면과제”(앞에 든 기관지 1948년 제2권 제5호에 실린 것을 김수경이 번역한 것임)를 비롯하여 역시 앞에 들은 И.И. 메쉬차니노프의 글(제1권 제2호), 그리고 Ф.П. 필린의 “三十年間の 로씨야 語學”(李揆現 역, 제1권 제4호), 그리고 Н. 베르니노브와 В. 브라긴스끼의 “선진적 쏘베트 언어학을 위하여”(김영철 역, 제1권 제5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해방 직후에 주로 마르주의 언어학이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50년 6월에 간행된 <조선어연구>(제2권 제3호)에서는 N.S. 체모다노프가 “이.브. 스탈린과 쏘베트 언어학”(pp.37~55, 이 논문은 소련 교육성 기관지 <로씨야어 교육> 1949년도 제6호에 실린 것을 황부영이 번역함)에서 스탈린의 언어관이 소개되어 마르주의에 대한 비판을 게재하기 시작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스탈린에 의하여 마르주의 언어학이 비판을 받은 다음에 구소련에서는 엔.야. 마르를 추종했던 언어학이 소멸되었으며 북한에서도 마르주의 언어이론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구소련에서 마르 이론에 대한 반박은 그의 생존시부터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뿌리바노프와의 논전이다. 한국어의 알타이어 기원설을 최초로 주창한 역사언어학자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E.D. 뿌리바노프(Polivanov, Е.Д. Поливанов)는 러시아혁명 이후 구소련의 언어학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마르주의에 반기를 들어 구소련 언어학사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은 언어학자가 되었다. 뿌리바노프는 쟁크트 뻬쩨르부르그대학에서 수학하고 일본 등지에서 현지답사를 하여 언어학자로서 聲譽를 높였으며 결국 뻬쩨르부르그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또 그는 전술한 뻬쩨르부르그학과를 창시한 3인의 언어학자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의 친구인 V.A. 카웨린(Kaverin, В.А. Каверин)은 “일본어학자이며 중국어학자였던 뿌리바노프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라틴어, 희랍어, 스페인어, 세르비아어, 폴란드어, 타타르어, 우즈베크어, 툴쿠멘어, 카자흐어, 키르키스어, 타지크어에 능통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리스트가 고의로 축소된 것이며 뿌리바노프는 이 외에 18개국 언어를 마스터한 것으로 보고 있다”(Каверин: 1976/59)라고 하여 뿌리바노프의 탁월한 언어능력을 증언하고 있다. 뿌리바노프는 일본의 방언학을 창시한 사람으로 그의 일본의 센다이 방언연구는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알타이어 연구자로서 한국어가 알타이제어와 친족관계를 맺고 있음을 처음으로 주장하였으며 튀르크어에도 조예가 깊었다. 또한 그는 시의 운율에 관심이 있어서 중국 한시의 운율에 대한 논문을 썼고 알타이 제민족의 시적기법에 관한 논문을 쓴 일도 있는 문학연구가이기도 하며 러시아혁명 이후 곧 그는 토로츠키정권에서 外務長官 代理까지 지낸 정치가이기도 하다(Poppe: 1983).

뿌리바노프는 처음부터 마르주의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마르 이론의 발전을 흥미깊게 보아왔고 한 때는 그의 이론에 공감하기도 하였다. 1922년 악명높은 마르의 “언어에 관한 실험설”이 발표되고 1926년에 “야페트이론에서 발전의 계단계에 대하여”가 공간된

다음부터 뵈리바노프는 그의 이론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간행된 “불가에 있어서 추바쉬 야페트족”을 계기로 하여 마르의 견해를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26년에는 뵈리바노프가 소련시아 사회과학연구소 연합의 리더였던 V.M. 후리체(Furiče, В.М. Фриче)의 초청으로 타쉬켄트에서 모스크바로 옮겨가서 마르의 ‘言語・思想研究所’에 소속되어 言語學研究所 연구원, 東洋學研究所 교수, 그리고 東洋勤勞者 共產主義大學의 民族語 部門의 책임자, 東方諸民族研究所의 소원, 언어와 문학연구소의 언어학 부문 운영위원 등 여러 요직을 겸임하고 1927년에는 소련시아 社會科學研究所 聯合의 언어학부문 議長이 되었다.

뵈리바노프는 1927년부터 1929년에 이르기까지 ‘야페트이론’에 대하여 몇 번인가 공식적인 비판을 가했다. 전술한 마르의 “언어에 관한 신학설”을 규범화하고 그것만을 유일한 마르크스주의적 언어이론으로 추종하던 구소련의 어용학자들에게는 뵈리바노프가 아주 위험천만한 反動的 인물로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뵈리바노프 討論’이라고 불리는 토론회를 1928년 12월 27일에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마르크주의 추종자들은 야페트이론을 유일한 유물론적이고 변증법적인 마르크스주의 언어이론임을 재삼 확인하고 이에 반대하는 뵈리바노프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하여 뵈리바노프는 1929년 2월 4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였으며 이때의 발표내용이 속기록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의 문제점과 야페트이론’에 기록되어 현재도 남아있다(Поливанов:1968).

이 속기록에 의하면 그의 주장은 스승인 보드앵의 생각을 아직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정당하고 논리가 정연한 비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한 17명의 언어학자 가운데 한 사람밖에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마르크학파에 의하여 뵈리바노프주의란 이름으로 매도되었으며 그들에 의한 조직적인 배척운동이 뒤를 따랐



다. 그러나 뱌리바노프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31년에 이를 반박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언어학을 위하여”라는 1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언어학논문집을 간행하였으며 이 책의 서문에서 “학문으로서는 야페트학과의 논쟁이 전혀 필요없다. 다소라도 조예가 깊은 언어학자라면 마르크주의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분명하며 주석은 필요없다. 그러나 과학적 사고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비전문가의 대중을 위하여 마르크주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공표할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러한 의무를 반드시 수행할 작정이다. 그렇지만 우리 반대자들은—이런 문제로 말을 거는 것이 곱셈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말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비언어학자들에게—해답을 구하는 것이 전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될 것이다”(Поливанов:1931/6~7, 桑野隆:1979 번역 참조)라고 하여 마르크주의에 대하여 매우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16)</sup>

당연한 일이지만 마르크주의자들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미 1929년에 모든 補職에서 해임되었으며 사마르칸트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에 간행하기로 한 東洋學專門大學用的 言語學入門 제2부를 비롯하여 그의 저서에 대한 출판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았다. 정력적으로 계속되던 저작활동도 마르크학파의 방해로 인하여 결국 1931년

16) 실제로 마르크주의자들의 추종자들은 언어학자들보다 혁명의 투사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전술한 포페의 <回想錄>(Poppe:1983)에 의하면 “(전략) 그러나 그의(엔.야. 마르크를 말함) 학설을 지지하거나 그에 精通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절제한 惡漢과 같은 자들로서 마르크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革命分子, 반마르크주의자로 몰아부쳤다. 마르크 자신이 매우 많은 사람들을 비밀경찰의 악랄한 손으로부터 구출해낸 것은 그에게 매우 명예스러운 일이다”(村山七郎 翻譯:1990/70)라고 하여 그 시대를 살았던 포페는 마르크 자신보다 그 추종자들에 의하여 마르크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盛行되었다고 보았다. 뱌리바노프가 그들을 곱셈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본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작은 서평 하나를 빼고는 전국 규모의 잡지에 발표하는 일이 없게 되었으며 1934년 말에는 후룬체로 쫓겨났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들은 그를 위하여 救命運動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그동안 프라하 언어학과에서는 그의 논문을 자신들의 기관지인 TCLP의 제4호(1931)에 “외국어 음성의 수용”을 실어 주었고 동 6호(1936)에는 “악센트의 기능에 대한 문제에 붙여서”를 게재하여 뵈리바노프를 지원하려 하였다. 트루벳코이가 야콥슨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여러번 뵈리바노프를 언급하였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뵈리바노프는 이미 마약과 알콜 중독으로 거의 폐인이 되었으며 마르크주의자들의 집요한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력을 이미 상실하였다. 결국 그는 1937년 3월에 체포되어 다음 1938년 1월 25일에 獄死하였다. 이에 대하여 포페의 <回想錄> (Poppe:1983)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뵈리바노프는 또 阿片의 常習服用者였으며 알콜 中毒者였고 放蕩癡이 있었다.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술을 마시고 연쟁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중략) 러시아 소설가 벤야민 카베린(В.А. Каверин을 말함-필자)은 당시 동양어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으며 그의 소설 <스캔달리스트>(В.А. Каверин: Скандалист, Москва, 1928를 말함-필자)의 주인공은 뵈리바노프가 원형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뵈리바노프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겼고 가끔씩 잠간동안 모스크바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마르크의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대립하였고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기 전에 마르크의 학설을 자신의 출판물 가운데서 공격하였다. 1937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체포되어 癲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된 것을 이겨내지 못

17) 1933년 11월 15일에 마르크주의자들의 압박으로부터 뵈리바노프를 구하려고 야콥슨에게 쓴 트루벳코이의 편지를 하나 소개하면 “(전략) 손메르헬트가 러시아에서 뵈리바노프를 끌어내어 망명자의 입장으로 옮겨놓을 수는 없겠는가 하고 물어왔습니다. 만일 이것이 실현된다면 손메르헬트 그가 아마도 노르웨이나 스칸디나비아에서 뵈리바노프가 있을 곳을 찾을 것입니다. 급히 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하략)”(Trubetzkoy:1975)와 같은 것이 있다.

하고 拘留所에서 죽었다. 그의 죽음은 학계로서는 대단한 손실이었다. 그의 惡習, 부도덕한 행동, 그리고 몇 사람에게 대한 잔인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훌륭한 학자였다.

村山七郎 翻譯(1990/71~72) 참조.

1950년 6월에 스탈린에 의하여 마르주의 언어학이 비판을 받고 몰락한 후 10여년이 지난 1963년 3월에 그의 무죄가 인정되어 伸冤이 되었으나 그가 죽은지 이미 20년이 훨씬 넘는 후의 일이었다.

## 2.6 스탈린의 신언어학

마르주의 언어학은 구소련의 최고 정치권력자 스탈린에 의하여 비판되어 비로소 그 이론의 부당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 革罷되었다. 뿌리바노프에 대한 무자비한 마르학파의 탄압을 보아 온 구소련의 언어학자들이 자신들만으로 이러한 사태를 개선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구소련의 최고 수뇌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언어는 특유한 현상이어서 기층이나 상부구조와 직접관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유도할 수 있고 이것으로 마르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상들이 분쇄되었다. 즉 언어가 인간의 사회적 계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는다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능하게 한다.

- (1) 각 기층에는 상층구조가 있고 그것은 기층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기층의 파괴와 더불어 상부구조가 소멸한다. 러시아에서 혁명 후에 자본주의가 폐지되고 사회주의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그 언어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다.
- (2) 각 상부구조는 그 자신의 기층에 따른다. 이것은 언어의 경우 각 계급이 그들 자신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유럽제국에서 자본가나 프롤레타리아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 (3) 상부구조와 기층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상부구조는 기층보

다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푸쉬킨(Пушкин)이 사용한 러시아어는 봉건제도나 자본주의보다 오래 살아있다.

- (4) 상부구조는 인간의 생산활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언어는 연결되어 있다. 기층은 변하지 않아도 문명의 새로운 성과는 사회생활에 새로운 말을 가져다 준다.

Ivič(1967/§211) 및 김방한 번역(1982/109) 참조.

이러한 생각은 마르크스주의 쪽에서 마르크주의자들을 공격하는 논거로 들었으며 이에 의하여 마르크주의의 운명은 판가름나게 되었다. 드디어 스탈린 자신이 마르크주의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 학파는 종언을 고하게 된다.

1950년 5월에 구소련의 일부 언어학자들이 마르크주의 언어학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 해 6월에 구소련의 최고 통치자인 스탈린이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마르크주의를 스스로 비판하기에 이른 다. 스탈린은 그 동안의 언어학을 비판하고 마르크주의도 反마르크스주의적이며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그르쳤고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스탈린이 1950년 6월 20일에 <프라우다>지에 발표한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Сталин:1950)에서 언어는 상부구조가 아니며 본질적으로 언어는 계급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sup>18)</sup>

스탈린의 마르크주의 비판은 김민수(1985/104~109)에서 그의 논문(Сталин:1950)을 북한에서 번역한 <스탈린 선집>(1965)으로부터 인용하여 상세하게 논의되었다. 그 가운데 해당부분을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8) 스탈린의 이 논문은 그 이전에 <프라우다>지에 12회에 걸쳐 자유토론을 거친 것으로 논문의 원제목은 “Марксизм и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마르크시즘과 언어학의 제문제)”이다.

소위 <바꾸 강의>(바꾸에서 엔.야. 마르가 한 강의)…실패작으로 인정된 <강의>를 충분히 가치있는 참고서인 듯이 함으로써 대학생들을 기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내가 메싸니노브 동지와 기타 언어학 활동가들의 성실성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러한 행위가 해독행위와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였을 것이다.

천만에 엔.야. 마르의 <마르크스주의>를 집어 치우라. 그는 기껏 해서 <프로문학>나 <로씨아 프로 작가 협회>와 같은 마르크스주의를 단순화하고 비속화하는 자에 불과하였다.

엔.야. 마르는 언어를 상부구조라고 하는 그릇된 비마르크스주의적인 정의를 언어학에 도입하여 자신을 혼란시키고 언어학을 혼란시켰다.

엔.야. 마르는 마르크스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불손하고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언어학에 끌어들이었는데 그러한 태도는 엔.야. 마르 이전의 언어학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무근거하게 분별 없이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엔.야. 마르는 비교-역사적 방법을 <관념론적>이라고 요란스럽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역사적 방법은 비록 중요한 부족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엔.야. 마르의 실제 관념론적인 4요소 분석보다는 훌륭하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스탈린 선집>(1965) 3(pp.401~409),  
김민수(1985/104~109)에서 재인용.

이러한 스탈린의 비판은 30년간 구소련의 혁명의 언어학으로 군림하던 마르크주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언어의 기원을 물질적 생산력과 결부하여 설명하였는데 사람이 살기 위하여 생산하고 생산하기 위하여 손이 있으며 생산 수단으로써 도구가 발명되는 것처럼 언어도 사회적 교섭의 도구로써 발전시켜온 것으로 보았다. 즉 언어는 사회적 교섭의 도구며 사회적 공동작업에 불가결한 요소로써 생산과정의 필수적인 보조물로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사회적 기초 위에 생산관계에 의해서 구조되는 정치·법제·종교·예술과 같은 상부구조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유대적 요소로써 그 기초 구성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언어는 사회가 존재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작용하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다. 언어는 사회의 발생 발전과 함께 발생 발전한다. 또한 언어는 사회의 사멸과 함께 사멸한다. 사회를 떠나서는 언어가 없다.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상을 교환하며 호상간의 이해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도구이다.

사상을 교환하는 것은 항시적이며 사회적인 필수조건이다. 그것은 사상 교환이 없이는 자연력과의 투쟁에서나 필요한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투쟁에서 사람들의 협동 동작을 조직할 수 없고 사회의 생산활동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결국은 사회적 생산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탈린 전집>(1965) 3(pp.418~419),

김민수(1985)에서 재인용.

또 스탈린은 언어는 전민족적인 것이어서 비록 그 사용에 있어서 지역적·계급적인 방언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지만 계급적으로 다른 언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전통적인 언어 정의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언어의 2대 구성요소인 문법구조와 기본어휘는 변화하지 않음을 역설하여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른바 4요소설을 부정하였다. 언어구조는 그 문법조직과 기초어휘가 몇 세대를 걸쳐 이룩된 역사의 소산이며 결국 언어는 역사적 산물이고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종래 역사언어학적인 언어관으로의 회귀를 보인다.

씨족어로부터 종족어에로, 종족어로부터 준민족어로, 준민족어로부터 민족어에로의 가일층 발달에 관하여 말한다면 발달의 모든 단계마다 어디서나 사회의 인간 교제수단으로서의 언어는 사회에 공통적이고도 유일하였으며 사회적 지위에는 관계 없이 사회의 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복무하여 왔다.

마르크스는 최고의 형태로서의 유일한 민족어의 필연성을 인정하였는데 이 최고형태에 최저 형태로서의 방언이 종속되는 것이다.

레닌의 말을 인용하고는 레닌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두 가지 문화, 부르조아 문화와 프롤레타리아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 자본주의 하에서의 민족 문화의 구호는 민족주의적 구호라는 것을 상기시키곤 한다. 이 모든 것은 옳으며 레닌은 여기에서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언어의 <계급성>이 있는가?

이동지들의 오류(誤謬를 말함-인용자)는 그들이 언어를 문화와 동일시

하고 혼동하는 데 있다. 그러나 문화와 언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산물인 것이다. 문화는 부르조와적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적일 수도 있지만 교제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항상 전 인민적인 언어이므로 부르조아 문화에도, 사회주의 문화에도 복무할 수 있다.

〈스탈린 선집〉(1965) 3(pp.408~418),  
김민수(1985)에서 재인용.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것은 언어의 역할이며 한 사회에서 하나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보아 마르크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언어의 계급성을 부정하였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언어를 “첫째 교제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항상 사회에 유일적이며 그 성원들에게 공통적이다. 둘째 방언과 통용어의 존재는 전 인민적 언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증하며, 방언과 통용어는 전 인민적 언어의 결과지으로써 전 인민적 언어에 종속되었다. 셋째 언어의 <계급성>에 관한 정의는 그릇된 비마르크스주의적 정의다”(전계 <스탈린 선집> 같은 부분)라고 하여 언어는 전 인민에게 공통된 것으로 어떠한 계급성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탈린은 언어가 상부구조에 속한다고 본 마르크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토대란 사회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있어서의 사회의 경제 제도이다. 상부구조-이것은 사회의 정치적, 법률적, 종교적, 예술적, 철학적 견해들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법률적 및 기타의 기관들이다.

언어는 이러한 면에서 상부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언어는 소여의 사회 내부에서 이런 또는 저런 토대, 낡은 또는 새로운 토대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사회의 력사 및 토대의 력사의 진행정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어떤 한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 의하여, 수백 세대의 노력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것은 어떤 한 계급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회의 모든 계급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에 유일적이고 사회의 전체 성원들에게 공통적인 전인민적 언어로서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교제의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복무적 역할은

한 계급에만 복무하고 기타 계급에는 불리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게 동일하게 복무하는 데 있다.

〈스탈린 선집〉(1965) 3(pp.401~409),  
김민수(1985)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에서 마르크주의자들이 강조하던 상부구조에 속하는 언어의 계급성은 부정되며 이러한 주장은 중대한 오류라고 선언하였다. 즉 스탈린은 “첫째 마르크스주의자는 언어를 토대 위에 서 있는 상부구조로 간주할 수 없다. 둘째 언어를 상부구조와 혼동하는 것은 엄중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스탈린 선집〉 3 위와 같은 곳)라고 하여 마르크주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스탈린의 이러한 마르크주의의 비판은 그 자신의 창의적인 의견이 아니라 뿌리바노프 등에 의하여 이미 비판된 것이며 바흐친 등이 러시아혁명 직후에 주장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초기 마르크스-엥겔스에 의하여 주장된 유물론적 언어관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소련의 언어관은 스탈린에 의하여 공식화되었고 구소련의 위성국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북한도 초기의 민족주의적 국어연구에서 점차 벗어나 구소련의 언어학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 제3장 북한 초기의 언어 연구에 미친 구소련의 언어학

### 3.1 북한 초기의 민족주의 언어학과 마르크주의

해방 직후 북한의 국어학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북한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蘇聯派



와 金料奉 등을 중심으로 하는 延安派가 혼합하여 정권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연안파의 首長이었던 김두봉은 周時經의 수제자로서 그 자신이 국어학자였으므로 북한에서는 초기에 주시경과 김두봉의 국어이론이 주로 세력을 얻었다. 이들의 국어학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국어연구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본어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연구태도는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다. 그리하여 한글을 숭상하고 독자적인 언어이론을 개발하여 국어를 기술하고 학문적으로 정리하려는 주시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1946년 2월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정식으로 수립되고 얼마되지 않은 1947년 3월 8일에 <표준말 맞춤법 사전>이 간행되었다. 이 철자법을 보급하고 혼란된 북한의 국어사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1946년 7월에 북한에서 민간 단체로서 조선어문연구회가 발족하였다. 이 연구회는 올바른 국어의 정서법을 계몽하고 일본어에 오염된 국어의 순화에 많은 공적을 쌓았으며 그 공로를 인정하여 19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 175호로서 이 연구회를 정식으로 김일성 대학 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연구회에서는 북한의 '조선어 신 철자법'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48년 10월 2일에는 북조선 내각의 제4차회의에서 조선어문연구회를 교육성에 두기로 결정하고 북한의 어문정책을 실제로 수행하기에 이른다. 이 연구회는 문법교재를 편수하고 사전을 편찬하며 연구지를 발행하는 등 국어정책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 부각하게 된다. 직제는 위원장인 서기장을 비롯하여 문법편수부장, 사전편찬부장, 편집출판부장, 정리과로 구성되었고 초대 위원장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루고 해방으로 출옥한 리극로가 취임하였다. 1949년 1월 15일에 열린 훈민정음 창제 505주년 기념식에는 김두봉을 비롯하여 홍명희(당시 부수상), 백남운(당시 교육상) 등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조선어문연구회에서는 기관지 <조선어 연구>를 1949년에 간행하였다. 이 기관지에 게재된 학자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즉, 김수경을 대표로하는 김일성대학 조선어학과 교수들의 언어학자들과 김두봉의 제자로서 주시경의 학통을 이어가는 리만규, 김금석, 박의성 등의 연안파 학자들,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田蒙秀, 홍기문 등의 월북파가 그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 식민지시대의 우리말 연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조선어학회의 항일민족정신을 계승하여 국어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수경 등의 김일성대학 교수들은 소련의 언어학, 특히 당시 유행하던 마르주의 언어학을 추종하였으며 김두봉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창간호에 실린 논문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창간사—리극로

論文

국문연구 단체의 연혁—리만규,

훈민정음의 음운조직—田蒙秀,

조선말 당소리의 발음 습관—박상준,

출판물에서 보는 우리말—박경출

思潮

쑤베트 一般言語學의 三十年—에스. 데. 까즈넨손(김수경 역)

쑤베트 言語學의 當面課業—金壽卿

講座

松江歌辭의 연구—한수암

資料

조선 어문 연구회의 사업 전망—편집부

古語例解—김종오

이것을 보면 조선어문연구회도 비록 조선어학회의 일원이었던 이극로를 위원장으로 하였지만 주로 신구현, 김수경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대학의 교수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으며 마르주의 언어학을 비롯하여 구소련의 언어학이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초기 국어연구는 주시경의 학통을 이어받은 김두봉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조선어학회의 후광을 입고 있는 항일 국어학자들의 영향도 적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조선어연구>(제1권 제4호, 1949. 7)의 권두에서 신구현의 “국문운동의 선각자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업적(1)”이 발표되었고 이것은 <조선어연구>의 다음 호(제1권 제5호)까지 계속되었다. 주시경의 국어연구가 북한에서 언어정책의 수립 등에서 존중된 것은 그의 학통을 이어받은 김두봉·이극로 등에 의한 것이며 1958년 3월 김두봉이 8월종파로 숙청되기까지 주시경의 국어이론은 북한의 언어정책을 주도하여 1957년 10월에는 북한에서 <周時經遺稿集>까지 간행되었다(김민수:1977/225~242).

실제로 1949년에 간행된 <조선어문법>은 북한 최초의 규범으로서 김두봉의 <김두조선말본>의 이론이 많이 수용되었다. 원래 이 문법서는 1948년 10월에 전술한 조선어문연구회 전문연구위원회 내부에 이극로, 전몽수, 허익, 명월봉, 김용성, 신구현, 홍기문, 김병제, 박종식, 박준영, 박상준, 김수경 등 12명으로 구성된 문법편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몽수가 위원장이 되었다. 이 위원회가 1년에 걸쳐 문법서를 편찬하고 1949년 12월에 간행하였다. 이 문법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책의 머리말에 “1949년 9월 초, 문법편수 분과위원회, 그 중에서도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강좌를 중심으로 한 위원들의 노력의 결과 조선어문법 초고가 완성되어 그 후 1개월 여에 걸친 위원들의 신중한 검토와 10월 3일의 문법분과위원회 및 전문연구위원회 총회에서의 최종적 토의의 끝에 조선어문법이 기본적으로 타당하게 편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공간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강좌를 담당하고 있던 김수경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김두봉의 신철자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문법이론을 기초로 하여 김수경 등의 신진학자들이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임홍빈:1997/22).

이 책의 간행에는 전문연구위원회에서 적지 않은 파란이 있었음을 문맥을 통하여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법서는 문장론을 형태론보다 우위에 놓고 형태론이 어음론보다 위에 놓은 것으로 보아 마르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임홍빈:1994/935~6). 아마도 김두봉이 중국 망명 시절에 심취했던 마르주의 언어학 등 구소련의 언어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김두봉은 주시경의 국어연구 방법을 계승하여 그의 연구방법이 이 시기에는 주류를 이룬다. 예를 들면 주시경 선생에 의하여 주장된 한글 가로풀어쓰기가 이 연구회에서 받아들여 제1권 제8호의 표지 상단에는 이 기관지의 명칭이 ‘ㅈ ㅊ ㅅ ㅌ ㄴ ㄷ ㄹ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라고 표기되었다. 북한에서 한자폐지가 단행되고 국어순화가 중단없이 수행된 것도 역시 주시경 학파의 주장이 북한정권의 수뇌부의 언어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시경 선생의 국어연구가 끼친 영향은 김두봉이 숙청된 다음에도 계속되어 김일성의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게 살려나 갈데 대하여”(〈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1968/8)에서는 김일성 자신이 “옛날 우리 선조들도 글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시경 유고집>에서 우리 글을 풀어서 가로 쓴 레를 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운운”하여 주시경의 영향이 1960년에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소련파와 연안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남한에서 월북한 홍기문, 전몽수 등의 이 국내파도 초기부터 대단한 활약을 보였다. 특히 북한 정권 수립 후에 부수상을 지낸 홍명희의 아들인 홍기문은 주로 국어의 역사적 변천에 관심을 갖고 古語의 주석과 이두 등의 차자표기의 연구에 주력하였다. 전몽수는 주로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를 이어 받아 서구의 음운이론에 입각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북한의 언어연구는 6·25동란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그리하여 북한의 언어연구는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이 수립한 때부터

1950년 6월까지를 한 시대로 잡을 수 있다. 이 시대는 해방 이후의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북한의 어문정책에서도 계속된 때로서 일제 강점기에 활약하던 조선어학회의 잔여세력과 소련의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을 소개하려는 소련파가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던 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6·25 동란이 휴전이란 상태로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전란이 수습되던 1954년부터 북한의 언어연구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우선 마르크주의 언어학이 스탈린에 의하여 비판된 다음에 스탈린이 주장한 언어 이론이 한 때 북한을 풍미하게 된다. В.В. Виноградов(위노그라도프:1952)에 의하면 스탈린이 마르크주의 이론을 비판한 이후 소련과 주변 지역들에서 민족어를 그 역사 속에서 연구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고 한다. 또 임흥빈(1994)에 소개된 아비로진 외(1954)에 의하면 마르크의 ‘신언어이론’의 해독을 제거하기 위하여 문법서의 편찬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문법에 관한 연구와 문법서가 간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대에 <조선어문법>1(1960)과 2(1963)가 간행되어 전술한 1949년 간행의 <조선어문법>과는 매우 다른 문법체계를 보여준다. 북한의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언어학연구실에서 편찬한 이 문법서는 초창기 김일성대학 조선어강좌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법서와는 달리 매우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물이었으며 마르크주의 언어학에서 많이 탈피하였다. 이 때는 김두봉이 숙청되었을 때이므로 그의 실각과 더불어 그의 이론도 비판을 받았으며 그가 마르크주의 언어학에 경도되었다는 비판도 나왔다.<sup>19)</sup>

뿐만 아니라 6·25동란 이후는 북한은 사사건건이 남한을 의식하

19) 이에 대하여는 전술한 필자미상의 “우리 당의 과학 정책에 충실한 조선어학을 위하여”(〈조선어문〉 1958년 제3호)를 참조할 것.

여 고의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에 기초하여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철자법도 북한만의 독자적인 정서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단어만들기라는 국어 순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김민수(1985)에 의하면 “1954년 9월에 이른 바 人民經濟復興 및 發展 3개년 계획과 함께 綴字法의 1차 修正과 檢行하여 言語의 規範化 및 淨化運動을 전개했다”라고 하여 이 시대에 북한의 언어문학연구소에서 간행한 <조선어 철자법 사전>(1956년 12월 간행, 과학원 출판사, 평양)을 비롯하여 장장명의 <조선어 철자법 해설>(1958년 10월 교육도서출판사, 평양)을 들고 있다(김민수:1985/145). 이로부터 북한의 독자적인 언어 규범화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시대를 제2기 철자법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sup>20)</sup>

제2기 철자법시대에 수행된 것으로 말다듬기로 알려진 언어정화운동은 한자폐지가 철저하게 시행된 북한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55년에 제정한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은 <말과 글>(1959년 5~8월호에 연재됨)에 소개된 “외래어 표기법 해설”에 의하여 그 윤곽을 알 수 있는데 그 행동 강령은 “① 쉽게 쓴다, ② 일본식을 없앤다, ③ 의미를 정확하게 쓴다, ④ 간결하게 다듬는다, ⑤ 좋지 못한 틀을 없앤다”의 다섯 가지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철저한 언어 정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외래어의 사용과 표기 및 그 정화에 따라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언어정화운동은 김일성의 교시가 있는 후에 ‘조선말규범집’으로 정리되었다.

언어정화운동으로 일어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어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한 어휘 차이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남

20) 김민수(1985)에서는 북한의 언어연구를 제1기(1945-54)—통일안시대, 제2기(1954-66)—「철자법」시대, 제3기(1966-현재)—「규범집」시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한과 북한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말이 있다. 즉 남쪽에서만 사용하고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과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 혁명의 불새가 난다’에서의 북한어 ‘불새’(“불새-〈혁명의 불씨를 널리 뿌리는 투사〉를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조선말 대사전>, 이하 <조>로 약칭, 상 p.1518)는 남한의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고 필자도 들어본 바가 없다. 아마도 ‘不死鳥’로 알려진 ‘火鳥(phoenix)’를 말 다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깜깜한 누리를 밝히며 자유의 대공을 날던 혁명의 불새는 이처럼 추악한 변절자때문에 깃을 꺾이우고말았다”(소설 <누리에 붙는 별>에서, 띄어쓰기 맞춤법은 원문대로, 이하 같음)에서 火鳥와 같은 혁명 투사를 묘사하는 말로 쓰였다.

둘째로는 남·북한이 서로 달리 쓰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이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다. 예를 들면 북한의 속담인 “지주는 죽어서 땅문서 안고 죽는다”의 ‘지주(地主)’는 남한의 사전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뜻풀이가 되어 별다른 나쁜 의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지주’에 대하여 “많은 땅을 가지고있으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지대의 형태로 농민들의 로동을 착취하면서 기생적으로 살아가는 자 또는 그러한 계급. 봉건사회에서는 물론 자본주의시기에도 많은 나라들에 의연히 남아있는 농촌의 기본착취계급이다”(〈조> 하 p.364)라고 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주’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은 남한에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셋째로는 같은 말이지만 표기가 다른 것이 있다. 주로 한자어에서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어의 철자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많고 또 외래어의 근원어가 다르거나 그 표기 방식이 달라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역사(歷史) : 력사’, ‘여자에 : 녀자에’와 ‘트랙터(tractor) : 트랙또르(трактор)’, ‘피오니르(pionier-노어, 소련의 소년단) : 뻬오네르(또는 뻬오넬, пионер)’에서 전자의 두 북한어

‘력사, 너자애’는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은 예이고 ‘뜨락또르’는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남한의 영어로부터 차용된 것과 차이가 난 것이다. 다만 ‘뽀오네르’는 러시아어이지만 남·북한의 러시아어의 표기가 다른 데서 생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는 평양 말을 기준으로 하는 북한의 문화어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는 남한의 표준어가 방언적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言語差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황철에서 타오른 자동차의 불꽃은 인차 온나라에 타번져 기술혁명수행에서는 새로운 양양이 일어났다”에서의 ‘인차’는 함경도 방언에서 ‘이내’의 의미로 쓰이던 것이 문화어로 인정된 것이다. ‘인차’에 대하여 북한의 1962년 <조선말 사전>에서는 “인차[부](방언) 곧”이란 풀이를 붙여 방언으로 보았으나 1968년 <현대조선말사전>에서는 이를 문화어로 고쳤으며 1973년 <조선문화어사전>에서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도 ‘이내’라는 뜻풀이와 함께 예문으로 “그곳에 가면 인차 편지를 하여라”(<조> 하 p.1707)를 들었다.

다섯째로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사회제도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어휘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안전부’, ‘사로청’ 등이 있다. ‘사회안전기관’은 <조선말대사전>(1992)에서 “[법학]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수령과 당을 옹호보위하고 인민정권과 국가사회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원썬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보위한다”(<조> 상 p.1650)라고 설명되어 있어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통치기관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 이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을 굳이 찾는다면 그 일부 기능을 경찰이 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로청(社勞靑)’은 역시 북한의 국가기관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준말로써 북한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단체를 말한다.



### 3.2 언어에 대한 김일성의 두 차례 지시

1964년과 1966년에 있었던 김일성의 두 차례에 걸친 지시는 북한 언어연구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64년 1월 3일 김일성은 언어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언어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린 바가 있다. 이 때의 지시는 북한의 당면한 여러 언어문제, 예를 들면 한자어 문제, 철자법의 대중화, 말다듬기 운동 등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1966년 5월 14일에는 ‘문화어’를 북한의 표준어로 하는 등 북한의 독자적인 어문정책을 천명하게 된다. 이에 의거하여 북한의 독자적인 <조선말규범집>이 1966년 6월에 제정되었고 동 7월 30일에 간행되었다. 이 규범집은 한글의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의 4부로 되어 북한의 철자법을 망라하고 있다. 이것은 1954년의 <조선어철자법>을 개정한 것이지만 남한의 한글맞춤법통일안과는 적지않은 차이를 보인다.

김일성의 언어연구에 대한 지시는 스탈린의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민족어로서 국어의 연구를 강조하고 언어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무기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전술한 유물론적 언어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언어는 하나의 도구이며 사용 목적을 위하여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언어도구관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말다듬기 등의 적극적인 언어정책의 수행으로 나타난다. 공산주의 혁명이 완수되고 전세계 여러 민족이 하나의 공동된 프롤레타리아 공동사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각기 민족어가 사용될 것이며 북한의 언어도 이 혁명이 완수되기까지는 이 민족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말과 글을 발전시키는 데서 세계인민들의 언어발전의 공통적인 방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물론

언어발전을 세계공통적인 방향에 접근시킨다고 하여 너무 빨리 우리 언어의 민족적인 특성을 버려도 안 됩니다. 온 세계가 다 공산주의로 되려면 아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까지는 민족적인 것을 살려야합니다. 민족적인 것만 보고 세계 공통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도 잘못이며 반대로 세계 공통적인 것만 보고 민족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문화어학습> 1969년 3호/1~9)라고 하여 일시적이지만 민족어의 특성을 살려서 사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의 이러한 지시는 북한에서 국어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국어의 역사적 연구라든지 언어도구관에 입각한 말다듬기 운동 등이 이 시기에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들인 우리는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족적 양심을 가진 조선 사람치고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이 없어져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공산주의로 되기까지는 사람들이 민족별로 갈라져 살기 마련이며 조선 사람은 조선 땅에서 살게 될 것이므로 조선 말을 계속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말을 잘 살리고 발전시켜야 합니다”<sup>21)</sup> 라고 하여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다만 이것이 언어 연구의 역사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언어도구관에 의한 것임은 그가 1970년 11월 4일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행한 연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보고 연

21) 1966년 5월 14일에 행한 이 지시는 후일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기 살려나갈데 대하여,”(<문화어학습> 1969년 3호/1~9)에 다시 실렸다.

설 속에서 그는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어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58~59, 김민수:1985에서 재인용)라고 하여 언어가 민족의 표징이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도구이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발전시켜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부터 북한의 국어연구는 마르크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 바흐친이나 스탈린 등에 의하여 주장된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에 입각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 제4장 결론

이상 제정러시아로부터 구소련에 걸친 러시아의 언어학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것이 초기 북한의 언어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러시아에서는 제정말기로부터 구소련에 이르기까지 여러 언어학파가 부침을 거듭하며 언어연구를 발달시켜 왔다. 본고에서는 먼저 보드앵 드 꾸르뜨네의 까잔학파를 위시하여 포르투나또프학파와 모스크바 언어학 서클(Moscow Linguistic Circle), 뻬쩨르부르크 학파, 초기 바흐친의 마르크시즘 언어학, 마르크주의 언어학, 스탈린의 신언어학 등의 순서로 제정러시아로부터 구소련에 이르는 러시아언어학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가운데 마르크주의 언어학이 북한의 초기 언어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소련에서 스탈린에 의하여 마르크주의 언어학이 혁파되고 마르크시즘 언어학에 입각한 스탈린의 신언어학이 대두하여 소련의 모든 언어학을 망라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북한의 언어학, 특히 김일성의 언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주장하였다. 스탈린의 신언어학은 그의 사후에 바흐친의 마르크시즘 언어학으로 발달하여 구소련과 오늘날 러시아 언어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것도 후일 북한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음도 아울러 고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를 고비로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언어연구방법을 개발하였다. 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언어연구는 일체의 외래학문과 교류를 거부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언어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학문으로서 언어연구가 매우 과학적인 방법에서 일탈하였다. 본고에서는 6·25동란 이전의 북한에서 마르크주의 언어학과 마르크시즘 언어학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김두봉과 김수경 등에 의하여 마르크주의가 영향을 주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스탈린이 마르크주의를 비평하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두 차례에 걸친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언어정책이 태동하였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길벗, 서울
- 김민수(1977); <周時經 研究>, 塔出版社, 서울
- 김민수(1985); <北韓의 國語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서울
- 김일성 저작선집>(1968),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 여홍상 번역(1995); <마흐친과 문화 이론>, 문학과지성사, 서울
- 임홍빈(1997); <북한의 문법론 연구>, 한국문화사, 서울
- 임홍빈(1994); “북한의 언어학,” 장석진 편(1994)
- 장석진 편(1994); <현대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서울
- 줄고(1994); “한국어 형성에서 고구려어의 위치—고구려어와 신라어, 그리고 일본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Parasection 1: Problems in the History and Prehistory of Korean(July 19, 9:30-10:00), 9th ICKL Conferenve Hosted by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 of London
- 위노그라도프(1952, В.В. Виноградов); “쑤베트 언어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 웨. 스탈린(И.В. Сталин)의 저작들이 가지는 의의,” 김일성종합대학 역(1955)
- Амирова, Ольховиков, Рождественский(1975); Т.А. Амирова, В.А. Ольховиков, Ю.В. Рождественский;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лингвистики. Москва
- Апресян(1966); Ю.Д. Апресян; Иден и метды современной структурной лингвистики. Москва, 1966
- Бахтин(1972) М.М. Бахтин;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Достоевского. Москва 新谷敬三郎 翻譯(1968); <ドストエフスキ論>(1963年版より), 冬樹社, 東京
- Бахтин(1965); М.М. Бахтин; Творчество Франсуа Рабле и народная культура Средневековья и Ренессанса. Москва 川端香男里 翻譯(1974); <フランソワ.ラブレールの作品と中世.ルネッサンスの民衆文化> せりか 書房, 東京
- Бахтин(1975); М.М. Бахтин; “К методологии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Контекст.1974>, Москва 新谷敬三郎 翻譯 “文藝學の方法をめぐって”, <はいまあと> 6
- Березин(1968); Ф.М. Березин;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языкознания в России,” (конец XIX—начало XX в.), Москва

- Березин(1975); Ф.М. Березин; История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учений. Москва
- Березин(1976); Ф.М. Березин; Русское языкознание конца XIX—начала XX в., Москва
- Бернштейн(1925); С.И. Бернштейн; “Звучащая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речь и ее изучение,” <Поэтика> т. 1. Ленинград
-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1963); И.А.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по общему языкознанию, т.1 • 2, Москва, 1963
- Бурич(1897); С.К. Бурич;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И.А. <Критико-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ученых> под ред. С.А. Венгерова. т.5. СПб., 1897
- Богатырев(1971); П.Г. Богатырев;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наро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Москва, 1971
- Выгодский(1956); Л.С. Выгодский; Избранны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сква, 1956 柴田義松(1964) 柴田義松 外 翻譯: <思考と言語> 明治圖書, 東京, 1964
- Виноградов(1926); В.В. Виноградов; “Проблема сказа в стилистике,” <Поэтика> Ленинград 新谷敬一郎・磯谷孝 編譯(1971); <ロシア・フォルマリズム論集>, 現代思潮社, 東京
- Винокур(1923); Г.О. Винокур; “Культура языка.” <Печать и революция>, 1923, No.5
- Волошинов(1928); В.Н. Волошинов; “Новейшие течения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мысли на Западе,” <Литература и марксизм> кн. 5, Москва
- Волошинов(1929); В.Н. Волошинов; Марксизм и Философия языка—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го метода в науке о языке—. Ленинград 桑野隆 翻譯(1976); <マルクス主義と言語哲學>, 未來社, 東京
- Выгодский(1956); Л.С. Выгодский; Избранны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сква 柴田義松 翻譯(1964); <思考と言語>, 明治圖書, 東京, 1964
- Выгодский(1968); Л.С. Выгодский; Психология искусства Изд. 2, Москва 柴田義松 他 翻譯(1971); <藝術心理學>, 明治圖書, 東京
- Грыгар(1973); М. Грыгар; “Кубизм и поэзия русского и чешского авангарда” <Structure of Texts and Semiotics of Culture>, Mouton, New York—London
- Иванов(1976); В.В. Иванов;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емиотики в СССР. Москва

- Каверин(1976); В.А. Каверин; Петроградский студент, Москва, 1976
- Ленин(1924); В.И. Ленин; О праве наций на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1924 번역 (1958); <민족자결에 관하여>; 조선 로동당출판사, 1958
- Лотман(1970); Ю.М. Лотман; Структур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Москва 磯谷孝 翻譯(1977); <文學理論と構造主義>, 勁草書房, 東京
- Лоя(1968); Лоя Я.В.; История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учений, Москва
- Матезиус(1965?); В. Матезиус; “Куда мы пришли в языкознании,” <История языкознания XIX—XX веков в очерках и извлечениях> В.А. Звегинцева, ч.2
- 磯谷孝 翻譯(1975); “19世紀から20世紀へ,” <現代思想>(青土社) 1975年 6月号
- Поливанов(1928); Е.Д. Поливанов; Введение в языкознание для востоковедных вузов. Ленинград
- Поливанов(1931); Е.Д. Поливанов; За марксистское языкознание, Москва, 1931
- Поливанов(1968); Е.Д. Поливанов; Статьи по общему языкознанию, Москва, 1968
- Пропп(1969); В.Я. Пропп; Морфология сказки. Изд. 2-е, Москва 大木伸一 翻譯(1972); <民話形態論>, 白馬書房, 東京
- Сталин(1950); Иосиф Виссалионович Сталин; Марксизм и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Правда> 1950. 6, 20, <스탈린선집> 3, 평양:조선노동당 출판사, 1965
- Третьяков(1923); С.М. Третьяков; “Откуда и куда,” <Лф>, 1923, No.1 日語 翻譯; <資料.世界プロレタリア文學運動> 第1卷, 三一書房
- Тынянов.Якобсон(1928); Ю.Н. Тынянов и Р.О. Якобсон; “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Новый Лф>, No.12. ツヴェタン.トドロフ ‘フォルマリズムと未來派’, <藝術俱樂部> 1974年 1-2号 및 <ロシア.フォルマリズム論集> 新谷敬三郎 磯谷孝 編譯(1971), 現代思潮社, 日語 翻譯 所在
- Шкловский(1919); В.Б. Шкловский; “Искусство как прием,” <Поэтика>, Петроград 水野忠夫 翻譯(1975); シクロフスキ <散文の理論>, せりか書房, 東京 桑野隆 翻譯(1975); シクロフスキ 他 <レーニンの言語>, 三一書房, 東京
- Шерья(1957); Л.В. Шерья; И.А.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и его значение в науке о языке.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Л. В. Шерья, Моск

- ва, 1957
- Щерба(1974); Л.В. Щерба; Языковая система и рече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Л., 1974
- Якобсон(1921); Р.О. Якобсон; Новейшая поэзия. Прага 水野忠夫 編(1971); <ロシア・フォルマリズム文學論集 1>, 세리카書房, 東京
- Якубинский(1919); Л.П. Якубинский; О звуках стихотворного языка. <Поэтика>, Пг., 1919
- Якубинский(1924); Л.П. Якубинский; "О снижении высокого стиля у Ленина," <Лер>, 1924, No.1(5) 桑野隆 翻譯(1975); シクロフスキ 他 <レーニンの言語>, 三一書房, 1
- Якубинский(1926); Л.П. Якубинский; "Ленин о <революционной> фразе и смежных явлениях," <Печать и революция>, 1926. кн.3.
- Якубинский(1932); Л.П. Якубинский и Н. М. Иванов; Очерки по языку, Москва
- Якубинский(1953); Л.П. Якубинский ; История древне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 Pomorska(1968); K. Pomorska.; Russian Formalist. theory and its Poetic Ambiance, Mouton, New York-London
- Averintsev(1977); Sergei Averintsev; "The world of Mikhail Bakhtin," <Soviet Literature> No.1
- Barooshian(1974); Vahan D. Barooshian; Russian Cubo-Futurism 1910-1930. Mouton,
- Courtenay(1909); Baudouin de Courtenay J.; Zarys historii językoznawstwa czyli lingwistyki (glottologii). Warszawa, 1909
- Stankiewicz(1972); Edward Stankiewicz tr. & ed.; A Baudouin de Courtenay, Anthology. Bloomington and London
- Benveniste(1964); E. Benveniste; Documents pour l'histoire de quelques notions saussuriennes. <Cahiers Ferdinand de Saussure>, 21, Paris
- Bogatyre & Jakobson(1966); P. Bogatyre & R. Jakobson; "Die Folklore als besondere Form des Schaffens,"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s>, 4. Mouton, London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1. Mouton, 1970, London
- Doroszewski(1969); W. Doroszewski; "Quelques remarques sur les rapports de la sociologie et de la linguistique," E. Durkheim et F. de Saussure. <Essais sur le langage>, Les Éditions de Minuit, Paris



- Engels(1935); F. Engels; *Naturdialektik*, 1935 번역(1966):〈자연변증법〉, 조선로동당 출판사, 평양, 1957. 개정판, 1966
- Erlich(1959); Victor Erlich; *Russian Formalism*. 3 edition, Mouton, New York-London
- Frank(1990); Joseph Frank; "The Voices of Bakhtin," Ch. 2 in *Through the Russian Prism: Essays on Literature and Culture*, Princeton UP, Princeton, 1990. pp.18~33 여홍상 번역(1995); "바흐친의 생애와 사상", <바흐친과 문화이론>(현대의 문화이론 총서 24), 문학과지성사, 서울, pp.17~43
- Godel(1957); R. Godel; *Les sources manuscrites da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Genève-Paris
- Häusler(1976); Frank Häusler; *Das Problem Phonetik und Phonologie bei Baudouin de Courtenay und in seiner Nachfolge*, 2. erweiterte Auflage. VEB Max Niemeyer Verlage L'Hermitte (1969); René L'Hermitte; "La linguistique sovietique," <Language> 15.
- Holenstein(1976); Elmar Hplenstein; *Roman Jakobson's approach to language*,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1976
- Humboldt(1971); wilhelm von Humboldt; *Linguistic Variability & Intellectual Development*, University of Miami Press, Miami
- Ivič(1970); Milka Ivič; *Trends in Linguistics*, Mouton, New York-London
- Jakobson(1971); R. Jakobson; *Selected Writings*, 1. Second expanded edition, Mouton, 1971. 2. 1971. New York-London
- Jakobson(1973); R. Jakobson; *Main Trends in thw Science of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Ltd., New York
- Jakobson & Halle(1956); R. Jakobson & M. Halle; *Fundamentals of Language*, Mouton, New York-London
- LaCapra(1984); Dominick LaCapra; *Rethinking Intelctual History: "Bakhtin, Marxism, and the Carnavalesque."*
- Markov(1968); V. Markov; *Russian Futurism*, Berkeley,
- Martinet(1958); A. Martinet; "Function, Structure, and Change," <Word> Vol.6, No.1. 黒川新一 翻譯(1958); <機能構造音韻變化>, 研究社, 1958
- Martinet(1970); A. Martinet; *Élémen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Armand Colin, Paris

- Marx & Engels(1845~46); Karl H. Marx &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번역(1957); <독일 이데오로기>, 조선 로동당 출판사, 평양
- Papp(1966); Ferenc Papp; Mathematical Linguistics in Soviet Union. outon, New York-London
- Poppe(1983); Nicholas Poppe; Reminiscences,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Bellingham, 1983
- 村山七郎 翻譯(1990); 下内 充・板橋義三 翻譯 村山七郎 監修; <ニコラス・ポッペ回想録>, 三一書房, 東京, 1990
- Vachek(1964); Josef Vachek ed.; Prague School Reader in Linguistics, Indiana Univ. Press, Bloomington
- Průcha(1972); Jan Průcha; Soviet Psycholinguistics. Mouton, New York-London
- Saussure(1972);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réparée par Tullio de Mauro, Payot, Paris 山内貴美夫 翻譯(1976); <ソシュール一般言語學講義校注>, 而立書房, 東京
- Thompson(1971); E.M. Thompson; Russian Formalism and Anglo-American New Criticism. Mouton, New York-London
- Trubetzkoy(1939); Nikolaj Sergejevič Trubetzkoy; Grundzüge der Phonologie. Travaux du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 VIII, 2 aufl.
- Trubetzkoy(1975); N.S. Trubetzkoy's Letters and Notes, Mouton, 1975
- Tzvetan Todorov; Mikhail Bakhtin; The Dialogical Principle, trans. Wlad Godzich, Minneapolis, Minn., 1984
- Vachek(1970); J. Vachek; The Linguistic School of Prague.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Vološinov(1976); V.N. vološinov; Freudianism: A Marxist Critic. Academic Press, 讃井鐵男 翻譯(1959); <カルロ.アントーニ '歴史主義から社會學へ'>, 未來社, 東京
- 磯谷孝(1973); “ヤコブソンの藝術記號論,” <現代思想>(青土社) 1973年 11月號
- 桑野隆 翻譯(1976); <ヴォロシノフ バフチン 'マルクス主義と言語哲學'>, 未來社, 東京
- 桑野隆(1975); “ボードアン.ド.クルトネについて,” <言語における思想性と技術性>, 朝日出版社, 東京
- 桑野隆(1978); “バフチンの對話をめぐて,” <未來>, 1978年 1月號, 2月號

- 桑野隆 翻譯(1975); <シクロフスキイ他 'レーニンの言語', 三一書房, 東京  
桑野隆(1979); <ソ連言語理論小史>, 一橋ボードアン・ド・クルトネからロシア・フォルマリズムへー, 三一書房, 東京  
佐藤純一(1972); “言語の‘進化’と革命,” <言語> 1972年 9月號  
村山七郎(1971); “ポリワノフの日本語研究,” <初原>(現代思潮社) 第2號 (1971)  
村山七郎(1971); “ポリワノフについて,” <窓> 18號 1971年 9月  
寮金吉 翻譯(1968); <チャールズ・モリス記號と言語と行動>, 三省堂, 東京  
水野忠夫 編(1971); “ロマン・ヤコブソン ‘藝術に於けるリアリズムについて,’” <ロシア・フォルマリズム 文學論集> せりか書房, 東京  
花輪光 翻譯(1977); <ロマン・ヤコブソン ‘音と意味についての六章’>, せりか書房, 東京  
川本茂雄 監修(1973); <ロマン・ヤコブソン ‘一般言語學’>, みすず書房, 東京  
服部四郎 編(1978); <ロマン・ヤコブソン選集 2>, 大修館書店, 東京  
福井芳男 他 翻譯(1978); <ミカエル・リファテール ‘文體論序説’>, 朝日出版社, 東京  
新谷敬三郎・磯谷孝 編譯(1971); <ロシア・フォルマリズム論集>, 現代思潮社, 東京  
水野忠夫 編(1971); <ロシア・フォルマリズム文學論集 1>, せりか書房, 東京

정 광(Kwang Chung)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Tel : 02-3290-1968  
E-mail : kchung@mail.korea.ac.kr